교과서연구

제 61 호

2010. 9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전찬구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이화성, 김정호,
  윤광원, 홍후조, 권영민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 번지 한국교과서연구재단빌딩
- **홈페이지:** www.ktrf.re.kr
- **전화:** (02) 2651-1950
- **팩스:** (02) 2651-1954
- **E-mail:** editor@ktrf.re.kr

* **표지 글씨** : 신두영
* **편집 디자인** : (주)미래엔컬처그룹 국정교과서팀

차 례

● 권 두 언

2 교과서도 연구해야 한다 / 전찬구

● 특별 기획: 교과서 집필로 본 교과 교육과정

4 교과서 집필을 통하여 살펴본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 신헌재
12 21세기 영어 교과 교육과정의 지향점 / 이찬승
19 교과서 집필로 본 수학과 교육과정 / 배종수
23 교과서 개발 경험을 통해서 본 사회과 교육과정 / 모경환
28 급변하는 사회에서 과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 권재술
33 교과서 집필로 본 음악과 교육과정 / 석문주
38 교과서 집필로 본 체육과 교육과정 / 조미혜

● 현장 교육

44 1교사 1교과 교실제 운영 사례 / 노희방
50 선진형(A형) 교과 교실제를 통해 학교 변화의 실마리를 풀다 / 우영옥
55 교과 교실제 실태와 개선 방안(B-2 type 교과 교실) / 백대준
60 2010학년도 C형 교과 교실제 운영 / 이승훈

● 연 재

67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육 제도와 교과서 제도 / 최원석

● 나와 교과서

72 유진

●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74 음악 교과서의 성악곡 둘러보기 / 김대원

● 제 언

79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라는 관점에 대한 고찰 / 김선영

● 탐 방

83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김영진 (주)미래엔컬처그룹 대표 이사

● 자 료

8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및 적용 일정

88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89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90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도 연구해야 한다



전찬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정부에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화성시 양평군, 전라북도 남원 등 여러 곳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에 약 5000개소의 자연박물관이 있고, 미국에만도 1100여 개소, 가까운 일본만 해도 150개소가 넘는 등 선진국은 모두 자연박물관을 많이 세워 자연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교육과 여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는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하나도 없다는 주장을 쓴 글도 보인다. 또, 어느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재빨리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 전문가를 초청했고, 각축전을 벌이는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국립교과서박물관 하나 없는 나라라는 지적도 필요하다.

어느 학자가 일본 교과서 연구 센터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우리의 옛 교과서가 그곳에 잘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연구하려는 학자는 일본을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해서 놀랍고도 서글픈 심정을 감추기 어려웠던 일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올해 초에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방안은 발표만 한다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발표에 따라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고 검정하면 그 방안이 기대하는 교과서가 탄생하는 것도 아니다. 심층적인 연구 없이 교과서가 선진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육의 본질적 내용을 담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 11월 25일에 설립되었다.

교육부에서는 '2000년대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한국교과서연구소 설립 운영 방안'을 기획하였으며, 또 '교과서는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가 필요한 공교육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앞으로 자유 발행제로의 정책 전환에 대비하려면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국교과서연구소 발전 계획'도 1997년 10월에 마련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있었음에도 1992년 설립 이래 20년 가까이 이 재단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반 구축을 이룩하였는지 자책감이 앞서지만 '교과서 판형 편집 디자인 등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외 정보 자료 수집 분석 및 국제 비교 연구', '자료 전시관 운영, 가격 사정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연구', '『교과서 연구』 등 간행물 발행', '정부 및 교과서 발행사가 위탁한 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여 본연의 기본 책무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학술 연구만 하더라도 이웃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규모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 녹록하지 못한 실정이다. 발행사들의 기금 출연과 정부의 지원이 여의치 못한 상태에서 청사 일부를 임대하여 그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재단의 발전적인 운영을 기약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때 국정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최근에 이르러 검정 교과서 중심 체제를 넘어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덧 인정 교과서 중심 체제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교육의 발전이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나라들의 교과서 제도가 인정 중심 혹은 자율 채택인 경향을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더욱 급변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이나 인력 양성, 연구 추진 등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 연구의 핵심적 기능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재단이 담당하여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까운 지적이지만, 우리나라 교과서 연구는 아직도 공급 면에서 다양화를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하루빨리 교과서 활용 면 혹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의 다양화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물론 교과서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와 교원, 교과서 발행사 여러분의 애정과 깊은 관심을 기대하고자 한다. 연

교과서 집필을 통하여 살펴본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신헌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된 지 몇 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고, 이어서 올 여름부터 각론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니, '역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긴 있었나 보다. 그러기에 개정, 공포된 지 3년 만에 다시 개정할 만큼 단명의 교육과정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 본다.

필자는 바로 이 단명의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구현하기 위한 국어과 국정 교과서 개발진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이 문제점 제기가 초등학교의 국어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겪은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기 교육과정은 개발진들에게 좀 더 적절하고 합당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년간 겪은 경험을 제기하여 이 교육과정에서 제고하여 볼 만한 문제점을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누어 개발진을 대표하여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Ⅰ. 국어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가 가지는 문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 이르는 10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체제로 국어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다 보니, 거기에 제시된 '내용 체계'가 10개 학년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문학 영역의 경우를 그 예로 들어 상술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내용 체계 표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내용 체계】

<table>
<tr><td rowspan="2">문학</td><td>• 문학의 본질
– 문학의 개념 – 문학의 갈래
– 문학의 특성 – 한국 문학의 특질
– 한국 문학의 기원과 사적 전개 과정</td><td>• 문학의 수용과 창작
– 작품의 미적 구조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양상
– 문학의 창작</td><td>• 문학에 대한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td></tr>
<tr><td colspan="3">•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
– 시(동시) – 소설(동화, 이야기) – 희곡(극본) – 수필</td></tr>
</table>

위의 내용 체계 표를 살펴보면, 문학 영역 내용 체계 속에 선정된 항목 중에서 '문학의 본질' 범주의 하위 내용에 해당하는 '한국 문학의 특질', '한국 문학의 기원과 사적 전개 과정' 항목은 그에 해당하는 학년별 내용을 초등학교 1~6학년의 문학 영역의 내용 중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범주의 하위 내용인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양상'에 대한 항목도 초등학교 문학 교육을 위한 학년별 내용과는 무관하다.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문학 일반 대신 아동 문학의 개념과 갈래 및 특성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한국 문학의 특질은 아동 문학의 특질로 대체되어야 한다. 문학 일반과 한국 문학 속에 아동 문학이 종적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1] 이와 같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는 실제 1~6학년 문학 영역의 학년별 내용과 관련 없는 항목이 적잖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살린 항목과 거리가 먼 것들이 있다 보니, 실제 초등 국어의 특성을 살린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다음에 제시하는 바에서도 보듯이, 2007 개정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내용 체계 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내용 체계】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 시(시가) – 소설(이야기) – 극(연극, 영화, 드라마) – 수필, 비평	
지식	**수용과 생산**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문학의 양식과 갈래	• 내용 이해 • 감상과 비평
• 한국 문학의 역사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 창작
맥락	
• 수용 생산의 주체 • 사회 문화적 맥락 • 문학사적 맥락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내용 체계 속에 제시된 바 '한국 문학의 역사'나 '작품 창작'에 해당하는 내용이 1~6학년의 학년별 내용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맥락 범주에 해당하는 문학사적 맥락 역시 초등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교육 내용이라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상정되지도 않았고, 될 수도 없다 보니 결국 내용 체계와의 상치 현상만 드러낼 뿐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라는 것이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짜인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 문학의 특질'이나 '한국 문학의 기원과 사적 전개 과정', '한국 문학의 역사', '작품 창작'과 같은 내용이 초등학교의 문학 교육과 무관하면서, 다만 7학년부터 10학년에만 해당하는 제7수준부터 제10수준까지의 문학 영역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담아 놓은 것이 초등 문학 교육의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의 학년별 교육 내용을 부실하게 하여 교과서에 구현할 학습 내용을 소루하고 빈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Ⅱ.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특성을 지적받을 만큼, 각 학년별로 성취 기준을 기술하기에 앞서 함께 매 영역별로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보이는데 이를 개조식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텍스트 유형 제시의 문제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텍스트 유형(설명문, 뉴스, 기행문 등)은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 수준에서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교과서 개발 시, 교육과정에 제시된 텍스트 유형만을 선정하게 되면 지나치게 한정된 유형이 되기 쉽고, 딱히 어느 한 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막연한 텍스트 유형은 배제되기 십상이다. 본디 텍스트 유형은 글의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텍스트 유형을 교육과정상에 못 박아 제시하다 보니 자칫 경직되고 편협한 교과서, 나아가 학습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기 십상인 교과서로 떨어질 우려까지 낳을 수 있었다.

2.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성이 가지는 문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이제 한글 해득과 더불어 기초적 문식성을 익히는 단계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중심으로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중학년 이상부터 텍스트 중심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3.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 기술에서 보이는 문제

성취 기준에서도 그렇지만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세분하여 제시하는 면이 있어 교과서를 개발할 때 그에 맞추어 텍스트를 각 단원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가운데에는 초등학생들의 실제 언어생활과도 동떨어진 인위적이거나 막연한 설정이 많아 교과서에 담아내거나 실제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시키는 데 애로를 겪게 한다.

4. '텍스트 유형'의 난체계성과 대표성 부족의 문제

학년별, 영역별로 제시된 '텍스트 수준과 범위'가 학년 간의 위계도 안 맞고, 영역 간의 연계도 안 맞으며 텍스트 유형별 대표성도 없는 난체계적 나열이라는 흠을 지니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교과서 제재 선정의 기준 몫을 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 위하여 문학 영역을 각 학년별로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기술하여 놓은 것을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	작품의 수준과 범위
1	– 운율이 잘 드러나는 짧은 표현이나 시 – 재미있는 표현이 드러나는 글이나 작품 – 상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담은 작품
2	– 운율이 잘 드러나는 짧은 표현이나 시 – 친숙한 인물이 등장하는 시나 노래, 극, 이야기, 수필 – 상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담은 작품 – 창의적인 발상이나 재미있는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3	– 운율, 이미지 등이 잘 드러나는 시, 노래 –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4	– 운율, 이미지 등이 잘 드러나는 시, 노래 –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5	– 사건의 전개가 분명한 작품 – 인물이나 배경의 묘사가 구체적인 작품 –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6	– 다양한 비유가 사용된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 – 인물 간의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엮에서 보듯이 1~6학년까지 제시된 '작품의 수준과 범위'를 보면 매우 막연하고 부실하다. 이는 무엇보다 문학 갈래 용어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데서 나타난다. 정작 1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에는 '그림 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텍스트 수준과 범위를 기술하는 대목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과서 개발자로 하여금 텍스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할 교과서이면서 정작 작품의 갈래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개발자는 막연히 '옛날이야기', '동화' 등의 갈래 용어를 사용하는 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년 간의 위계성의 미비함은 다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상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담은 작품'은 1학년과 2학년에 반복된다.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3~4학년에 반복된다.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은 5~6학년에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은 학년 사이의 위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 각 학년별로 제시된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서도 어떤 위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특정 유형의 텍스트를 특정 학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하는 방식에 그칠 뿐 제대로 된 학년별 위계성을 담보할 교과서를 만들 수 없게 한다.

5. 교과서 영역 간의 통합에 지장을 주는 문제

본디 교과서를 매 학년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3권 체제로 하더라도 영역 간의 통합적 교수 학습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단원명과 체제를 일치시키고 있지만, 지금처럼 매 학년마다 영역별로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각기 따로 따로 제시하다 보니, 학년 간의 통합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 때로는 해당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가 학년을 달리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학년 간의 연계성 살리기에도 문제를 초래한다 (예: 기행문의 경우 읽기는 4학년, 쓰기는 6학년). 가능한 한 같은 학년 내의 영역 간에는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가 보다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면 좋겠다.

Ⅲ. 교육과정의 학년별, 영역별 '성취 기준'의 체제가 가지는 문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국어과의 경우, 학년별 교육 내용을 '성취 기준'이라는 용어로 대체시켜서 지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2] 그런데 문제는 이 성취 기준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체계성에 치중하여 거시적으로 구성하다 보니 자연히 각 학년별 교육 내용이 양적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3] 질적으로도 각 학년의 수준에 따른 독자성과 치밀성에 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경향이다. 학년별 내용의 구성도 치밀하지 못하고 위계성에도 문제를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성취 기준이 가지는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1. 성취 기준의 비정교성과 영역별로 4개로만 된 획일성이 가지는 문제

성취 기준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문학 영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우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6학년까지의 성취 기준을 도표화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학년	1	2	3	4	5	6
성취 기준	(1)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	(1) 느낌을 살려 노래 부르거나 시를 낭송한다.	(1)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1) 좋아하는 시를 분위기를 살려 암송한다.	(1) 문학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이해한다.	(1)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2) 문학 작품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말로 표현한다.	(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	(2) 문학 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	(2) 구성 요소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2)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	(2) 문학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한다.
	(3) 그림 동화 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3)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민다.	(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3) 문학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이해한다.	(3) 문학 작품을 다른 문학 갈래로 바꾸어 쓴다.
		(4)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을 넣어 글을 쓴다.	(4) 문학 작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	(4)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	(4)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쓰고, 그 의도의 효과를 설명한다.	(4)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 간의 갈등을 이해한다.

문학 교육과정 내용의 위계에 대한 비판[4]은 이미 제기된 바도 있는데, 그 밖에 위계화의 치밀성과 교육 내용 선정의 정교성 면에서도 허점이 보인다. 이처럼 성취 기준이나 내용 요소 간 위계성이나 계열성이 명확하지 않아 학년별 위계를 고려하여 단원이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유사한 활동을 반복시켜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문학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년별 교육 내용 사이의 위계도 명료하지 않는데다 타 영역과 마찬가지로 모두 4개씩으로 획일화시킨 학년별 교육 내용을 가지고 일 년 내내 1학기와 2학기 교과서의 문학 단원에 구현시켜 학습하다 보면, 자칫 한두 가지 성취 기준만으로 몇 주씩 지루하게 반복시킬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며 풍요로운 문학 체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의 관계 해석의 모호성, 불명료성

내용 체계 표상의 지식, 기능, 맥락 요소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성취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처럼 지식, 기능, 맥락의 어우러짐이 성취 기준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는 단순히 지식, 기능 요소를 중심으로 차시별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그러다 보면 자칫 개정 교육과정의 맥락 요소는 제대로 구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내용 요소의 예에서도 맥락 요소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의도는 좋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성취 기준과 언어 사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불명료성

현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은 기본적으로 언어 사용 목적별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은 어떤 언어 사용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 4학년 읽기의 '(2) 글을 읽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만,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 또, 성취 기준의 제시 순서가 대체로 '정보 전달-사회적 상호 작용-설득-정서 표현'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취 기준과 언어 사용 목적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원칙에 의하여 제시되었는지, 또는 1:1 대응이 아닐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

4. '성취 기준'과 '담화의 수준과 범위' 제시 사이의 중복성

현재 '담화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즉, 성취 기준에도 담화의 수준과 범위가 들어감으로써 지나치게 내용을 제한하는 감이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성취 기준에서는 특정 담화의 조건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개발 과정에서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5. 학습자 수준에 과도한 성취 기준

성취 기준에 따라서는 해당 학년의 발달도에 맞지 않는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여 학습자에게 지적 부담을 주는 어려운 교과서를 개발하게 하고 있다.

그 예를 초등학교 3학년 말하기 영역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3학년-말하기-(2)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한다.	• 주장하고 싶은 내용 선정하기 • 관련된 이야기나 속담 조사하기 •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기

위의 속담과 같은 관용 표현은 과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를 3학년으로 하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학습자가 '속담'을 처음으로 접할 때는 먼저 '속담'의 특성이나 기본적인 의미 등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어휘력'의 확장이 선행된 뒤에 속담을 의사소통상에 활용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고 본다. 그런데 이 성취 기준에 의하면 3학년에서 먼저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하기'까지 완성하도록 하고 있어 이 단계의 학습자에게 무리한 성취 기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교과서 학습 내용을 중복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구현하기가 힘든 성취 기준

성취 기준 가운데에는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 '실제적인 국어 사용 능력'과도 직결되어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교과서 집필 시, 해당 학년 학습자의 실제 국어 생활에 비추어 유의미한 학습 활동으로 한 단원을 구성하려고 보면 빈약한 내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역시 초등학교 3학년 말하기 영역에서 그 예를 들어 보이기로 한다.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3학년- 말하기-(3)	전화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를 한다.	• 전화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전화 대화 시 지켜야 할 예절 알기 • 상황에 따라 예절을 지키면서 전화로 대화하기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3학년- 듣기-(3)	전화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예의 바르게 듣는다.	• 전화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 상대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어 응대하기

일반 성인의 수준에서는 '전화 대화'라는 담화 연구만으로도 수없이 다양하고 충분한 내용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학습자의 실제 생활을 고려한 '전화 대화' 상황을 가지고 두 개의 성취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원의 비중을 고려하여 3~4개의 단원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 교수 학습의 내용이 계속하여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다.

위의 '성취 기준'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듣기 말하기로 엄연히 나누어진 두 개의 성취 기준을 구별하여 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고유한 단원을 구성하기도 힘들고, 듣기 말하기가 통합되어 연결된 방식으로 단원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단원별, 차시별 학습 목표가 명확히 차별될 수 있도록 해 보았지만, 교육과정에 제시된 두 개의 성취 기준을 동시에 구현하는 단원의 내용이 되다 보니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라는 인상을 떨치기가 힘들었다.

7. 구체적인 담화에 관련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아 집필이 어려웠던 성취 기준

바람직하기로는 학계에서 충분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성취 기준이 나와야만 그 연구물을 토대로 하여 교과서 개발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기서는 듣기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에서 먼저 '훈화'에 대한 성취 기준부터 그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성취 기준이나 담화의 수준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세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성취 기준을 각 단원에 균형 있게 배분하기 어렵게 만든 점, 그리고 제시한 성취 기준이나 담화의 수준과 범위 가운데에 실제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고,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 점 때문에 이들을 교과서에 구현하는 데 애로를 겪었던 추억도 새로운데, 여기서는 그것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3학년- 듣기-(1)	훈화를 듣고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파악한다.	• 대강의 내용 파악하기 • 이야기의 내용에서 교훈 추리하기 • 교훈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 훈화가 필요한 상황 이해하기

현재 '훈화'라는 장르에 대한 연구물은 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물론 방계 영역에서도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교육과정에서도 '훈화'를 성취 기준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도 혹시 타 영역에서 '훈화' 관련 참고 문헌이나 연구 결과를 뒤져 보았으나 고작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훈화를 묶어 놓은 자료집 수준의 자료만 몇 가지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집필진끼리 경험적 접근을 토대로 하여 토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단원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은 '안내하는 말하기 듣기'에 대한 성취 기준의 사례이다.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3학년- 듣기-(3)	안내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 안내하는 말의 특성 이해하기 • 알고 싶은 내용에 주의하면서 듣기 •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하기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3학년- 말하기-(1)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말을 한다.	• 안내할 내용 조사하기 • 조사한 내용 정리하기 • 안내할 내용의 정확성 판단하기 • 듣는이가 알기 쉽게 말하기

이 안내하기에서도 '설명과 안내는 어떻게 다른가?', '3학년 수준에서 안내하는 말을 할 기회가 있는가? 있다면 그 상황의 안내하는 말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메모하며 듣기의 선행 학습의 필요성 여부, 지도 방법은 어떤가?', 그리고 '듣기 성취 기준과 말하기 성취 기준을 분리하여 집필할 수 있는가?'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한 기초 연구 결과물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뒷받침 없이 나온 성취 기준이라 이를 교과서로 개발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8. 성취 기준 배열상의 불균형성과 비일관성

학년별, 영역별로 제시되는 성취 기준의 배열에 있어서 반복 심화의 원리 등이 적용되어야 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칠 정도로 유사한 성취 기준 내용이나 수준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성취 기준은 특정 학년에만 한두 번 제시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서 배열상의 타당한 논리와 균형을 잃는 경우가 더러 보인다. 또, 성취 기준에 따라서는 일부 학년에만 드러나 있거나, 있더라도 내용 요소를 고루 갖추지 못한 성취 기준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이고 비일관적인 성취 기준의 배열은 결국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단원 구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어 본 경험을 토대로 삼아, 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 및 학년별 영역별 성취 기준의 체제로 나누어 그 각각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그 외에도 성취 기준이나 담화의 수준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세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성취 기준을 각 단원에 균형 있게 배분하기 어렵게 만든 점, 그리고 제시한 성취 기준이나 담화의 수준과 범위 가운데에 실제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고,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 점 때문에 이들을 교과서에 구현하는 데 애로를 겪었던 추억도 새로운데, 여기서는 그것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다만, 이번에 새로 개정될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이 보인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 해결하여 교과서 개발자로 하여금 그동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연

---

1) 지금까지 우리 문학계에서는 아동 문학을 일반 문학의 종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동심'을 다루는 특수 문학으로 보면서 일반 문학 개론이나 문학사 연구에서 열외시켜 온 실정이다.

2)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성취 기준의 진술 원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들고 있다.
① 글의 유형+내용 요소(지식, 기능, 맥락)+행동을 결합하여 진술한다. ② 개별적인 지식, 기능, 맥락보다 한 편의 담화를 수용, 생산하는 활동에 맞추어 기술한다. ③ 성취 기준에 포함된 내용 요소(지식, 기능, 맥락)는 담화를 생산, 수용하는 데 주요소로 보이는 내용 요소로 한다. ④ 교육과정 실행 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cf.)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Ⅲ)-국어,도덕, 사회-』(한솔사, 2008.) 23쪽.

3) 각 학년별 영역별 지도 내용의 숫자로 비교하여 볼 때 제7차 이전 교육과정의 경우는 평균 8개 문항 이상이었는 데 비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로 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반으로 줄어 4개 문항으로 획일화되었다.

4) 이지호(2000. 9.),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 ,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1세기 영어 교과 교육과정의 지향점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Ⅰ. 들어가며

그동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왜 그럴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역발상을 통하여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는 접근을 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모양과 내용의 큰 틀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장 적합성이 높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교과서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교육과정 내용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나 집필 지침을 통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 때문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더 크다. 따라서, 현 교육과정에서 좋은 교과서가 나오기 위한 조건을 잠깐 살펴본 뒤, 21세기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영어 교과 교육과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현 교육과정에서 좋은 교과서가 나오지 못하는 주요 원인과 대안

"너무 제약이 많음! -다양한 활동과 아이디어, 창의적인 발상, 재미 요소를 모두 죽여야만 그 기준을 다 맞출 수 있음!"

필자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교과서를 필자와 함께 썼던 한 영어 교과서 저자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영어 교과서가 나올 수 없는 이유로 한 말이다.

백번 공감이 가는 말이다. 어휘 한 가지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110-120-130-140 단어(총 500 단어) 사용이라는 제한이 있다. 이런 제약 속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자유로운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초 중 고등학생이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 스킬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하여 알아야 할 최소 외국어 어휘 수(threshold level)는 3000 어휘(word families)이다. 이는 단어(single word) 수로는 약 4500개에 해당된다.

이를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배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보면 좋을 것이다.

- 초등학교: 1000 단어(3-4-5-6학년별 220-240-260-280 단어)
- 중학교: 1500 단어
- 고등학교: 2000 단어

=총 4500 단어(≒3000 word families = threshold level)

이런 제약 요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하

였고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사교육 부담 때문이었다면 재미없는 교과서가 싫어 사교육으로 가는 아이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어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현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과감히 자율성을 높이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1.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는 성취 기준만 제대로 제시하고 이를 어떤 교과서 체제와 내용으로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자들에게 맡긴다. 교과서와 학습 활동 책의 분량, 권 수 등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세계적 이론에 충실한 교과서보다는 한국적 환경에 알맞은 교과서를 유도한다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은 반드시 통합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이상론에 집착하지 말고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한 지금의 방식 대신 음성 언어 중심의 교과서와 문자 언어 중심의 교과서, 또는 한 권짜리 교과서, 두 권짜리 교과서 등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영어 교육은 충분한 근거와 신뢰성 있는 검증 없이 세계적으로 풍미하는 교수법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가져다 쓰는 면이 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LT)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는 국적 있는 교수법을 지향하고 있다. 가장 좋은 교과서는 이론에 충실한 교과서가 아니라 사용 환경에 적합한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이다.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내용 체계의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의 교과서 심사 제도가 저자들로 하여금 감히 한국적 미신(myth)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을 매우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3. 교과서의 품질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사용을 통하여 걸러지도록 한다

지금과 같은 집필 지침과 심사 제도에서는 재미없는 붕어빵 영어 교과서가 나오고 부실한 심사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국가는 최소 기준만 정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과서가 아니면 다 합격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 좋은 교과서의 기준은 학교가 처한 상황이나 학생들의 진로와 수준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는 자유 발행제를 통하여 다양한 교과서가 시장의 심판을 통하여 걸러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과서를 실제 교실 수업에 사용하면서 교사와 사용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소수의 심사 위원이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교과서를 공급자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합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선택적 재구성이 가능한 모듈(module)형 디지털 교과서를 지향한다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난이도와 구성 체제, 내용을 가지는 교과서 시대는 하루빨리 막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과서 제도는 획일적인 기성품(one-style-fits-all) 시대에나 맞는 것으로 맞춤 교육 시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심하게 말하면 시대착오적 제도이다.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에 영어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는 각 단위 학교에서 학교 상황에 맞게 교과서를 쉽게 선택적으로 재구성하여 쓸 수 있게 모듈형을 검토하여 보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중간재(中間材) 성격의 교수 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선 학교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5. 학년별 구분에 의한 교과서 발행 제도 대신에 무학년제를 도입한다

이미 수많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학년별 구분에 의한 교과서 발행 제도를 없애고, 언어 기능별 정교한 등급과 수준을 개발한 뒤에 교과

서와 사교육 업체의 참고서까지 이 기준에 따라 개발하면 수준별로 교과서 선택이 수월하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영어 교육 효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Ⅲ. 새로운 교육과정의 모색

21세기는 수많은 것이 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변한다. 따라서, 영어 교육과정도 변화된 환경에 맞고 미래 지향적일 필요가 있다. 영어는 과목의 성격은 물론 영어 교육의 목적까지 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영어 교육과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세계는 글로벌화(globalization), 기술의 발달, 다양한 매체의 등장, 인구의 활발한 이동과 이주, 다국적 기업의 증가, 시공을 초월한 지식과 정보의 활발한 유통 등으로 인하여 지구촌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급속히 통합되거나 상호 의존성과 연결성을 높여 가고 있다. 한편, 영어 사용자 수는 전 지구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영어는 자연스럽게 점점 더 지구촌 사람들의 공용어 성격으로 변하여 왔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어 교육의 목적과 영어의 새로운 표준에 대한 논의가 20세기 후반부터 활발히 일기 시작하였고, 이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영어 교과 교육과정이 탄생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1. EFL과 EIL의 공존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규정하며 영미 영어를 표준으로 삼아 왔고(실은 미국 영어 중심), 교과서 개발 및 학교의 영어 교육 역시 미국 영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영어는 더 이상 영미 모국어 사용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이 더 빈번한 시대를 맞았다. 즉, 영어가 지구촌 공용어의 성격과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더 이상 영미인들로부터 빌려 쓰는 외국어가 아니라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영어를 외국어로 규정하는 한, 심리적으로 한국인은 남의 언어를 빌려 쓰는 신세이고, 그래서 항상 이방인이며 영미인 앞에만 서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영미 원어민 수준의 영미 영어를 기준(norm)으로 삼는 한, 한국인 영어 교사는 항상 원어민 교사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의 발음, 한국어의 문법, 한국의 문화가 스며 있는 한국인의 영어가 영미인들이 사용하는 영어와 똑같을 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강세와 사투리를 사용하고,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문화가 듬뿍 배어 있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사회인 것이다. 한국인이 영미인과 똑같은 발음, 똑같은 영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마치 전라도 사람, 제주도 사람들이 서울 중류층 표준어를 배워 사용하려고 안달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평평해진 세계에서 지구촌 영어도 다양한 종류의 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훗날 한국인이 쓰는 '한국식 영어(Korean (variety of) English)'가 언어 적합성(legitimacy)을 갖추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미국 영어와 똑같이 존중받고 똑같이 가치 있는 세계의 언어 자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또는 프랑스 사람과 독일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할 때 왜 영미인들의 관용 표현(idiom)까지 동원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왜 동양인들끼리 영어로 의사소통할 때도 담화의 논리적 구조까지 서양식으로 해야 하는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되지 왜 영미인들의 발음이 표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20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일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과거 10여 년이 넘게 오랜 논쟁과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① 세계인들의 공용어로서의 영어(EIL: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는 영미 영어만의 독특한 관용 표현 등을 제외한 만국 언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과 구문들(common cores)이 바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영어 발음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면 되지, 영미 원어민의 발음이 한국 영어 공교육의 도달 목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TOEFL도 평가 시 이미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③ 세계에는 호주 영어, 인도 영어, 싱가포르 영어, 아프리카 영어, 말레이시아 영어, 필리핀 영어 등 다양한 영어가 존재한다. 영미 영어는 이중의 하나일 뿐이지 영미 영어가 더 표준적이고 다른 나라의 영어는 저급한(inferior) 영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으며, 언어적 적합성을 나름대로 잘 갖추고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세계의 영어들(World Englishes)은 영미 영어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④ 영어 교사의 이상적인 모델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이 아니고 영어가 유창한 모국어 사용 영어 교사이다.
⑤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는 이제 더 이상 영미인의 소유가 아니고, 영어 사용자의 자산이다.

이러한 담론의 세계적 전문가인 Jenkins, Sandra McKay, Seidlhofer, Andy Kirkpatrick 등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영어는 발음과 문법과 담화(discourse)의 구조가 영미의 그것과 달라도 언어의 적합성(legitimacy)을 갖추고 있고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또 공정한 일이다.

이상의 내용에 공감한다면 새로운 영어 교육과정은 좀 더 적극적으로 EIL의 패러다임과 세계의 영어(World Englishes)를 최소한이라도 반영하고 점차 확대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도 영어 선생님들을 한국 교단으로 초빙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교과서 녹음에 호주 영어와 인도 영어의 발음을 일부 과(unit)에 한해서라도 함께 녹음하는 것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영어의 선호도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문화 동질화(cultural homogenization)나 문화 종속화(cultural imperialism)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의 다양한 영어(World Englishes)에 대한 열린 태도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세계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가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 공통 참고 기준(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을 개발한 동기가 회원국들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다중 언어주의(plurilingualism), 다중 문화주의(plurilculturalism)를 증진시킴으로서 개인 상호간의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을 향상시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영어 교육의 목적 변화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에 있어 영어는 취업의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고 다국적 기업에서 상용어가 될 만큼 생존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또, 중요 지식이나 정보가 영어로 된 것이 많아 영어를 '정보와 지식 습득의 수단 언어(language for information/knowledge)'라고 칭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도 그러한 면이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영어는 여러 교과목 중의 하나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영어는 대도시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등에서 수학, 과학 등을 가르치는 매개어(medium of instruction)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대학에서도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어가 이렇게 외국어라는 특정 교과 영역을 넘어 일반 과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과목 전반에 걸쳐 필요한 학습 스킬(generic learning skill)'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많다.

현 정부 초기에 영어 이머전 교육의 도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지금 영어 몰입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들도 한국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언어 중심 교육(language-based instruction)에서 내용 중심 교육(content-based instruction)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주 교육 타운과 송도, 영종도 경제 특구에서 외국 일류 학교의 커리큘

럼이 들어와 본격 운영되면 그 영향으로 인하여 영어 몰입 교육의 필요성은 또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영어 교육 분야의 세계적 대가인 Jeremy Harmer가 자신의 최근 저서에서 영어를 학교 교실 수업만으로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영어 사교육의 증가의 원인이 공교육 부실 때문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영어 이머전 교육의 차선책으로 다독(ER: extensive reading)을 공교육에 접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영어 교육의 목적이 기존의 영어 교육과정에 언급된 것보다 많이 확장되었고, 네 가지 스킬 중에서 읽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에 현재의 영어 교육 정책 자체를 영어 교육의 목적 변화와 수요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영어 교과에도 교육과정 총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반 역량 중에서 영어 교과와 관련이 깊은 것은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의 도입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이 이에 공감하고 관심을 보여 왔으나, 관련 연구는 매우 초기 단계이고 교육 선진국의 도입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영어 교과에서는 어떤 역량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21세기가 요구하는 역량 중에서 세계어로서의 영어(EIL)에 기반한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사회 속의 의사소통 능력, ePal.com과 같은 사이트에서 세계의 동료들과 공통 관심 과제를 협업(collaboration)을 통하여 해결하는 능력, 세계 시민 의식(global citizenship)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Bloom의 인식 영역 분류 체계(Bloom's Texonomy)의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창조에서 상위 고등 정신 능력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게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성취 기준의 동사들은 주로 '이해하다, 식별하다' 등 낮은 수준의 사고력에 대한 동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정된 영어 교과서의 성취 기준의 서술에 있어서 '안다, 이해한다'보다 상위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창조' 계열의 동사들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각 교과 내용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맵(map)을 그리는 연구와 실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교과 내에 진로 교육이 통합된 방식의 교육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 교육은 고유 목적 외에 학습자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현재 배우는 내용이 자신의 현재나 미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게 한다. 이는 자발적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지금처럼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서 중심의 진로 교육으로는 진정한 진로 개발 역량(예: 긍정적 자아 개념, 대인관계 능력 등)을 키워 줄 수 없다. 진로 개발 역량을 교과 내에 통합하는 방식이 옳다. 이는 교육 선진국들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도 필히 이렇게 가야 하나 아직 진로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더욱이 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일이 더욱 난제(難題)라고 생각된다.

진로 교육이 교육의 중핵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그중에 진로 개발 역량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예: '모든 교과서는 전체 분량의 5%를 진로 관련 내용으로 구성한다.' (홍후조, 2008.)).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진로 교육과 각 교과 내용과 관련성을 찾는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 교과의 경우에는 외국어 사용 능력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비판적 글 읽기 능력, 타문화에 대한 이해, 타문화 출신 사람들과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 다양하고 목표 수준이 개인별로 많이 달라,
기존과 같은 학생의 학년과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성취 기준의 서술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는 학년과 상관없이
학생의 현재 수준과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무학년제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성취 기준이 능별, 등급별로 언어 사용 능력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 다양하고 목표 수준이 개인별로 많이 달라, 기존과 같은 학생의 학년과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성취 기준의 서술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는 학년과 상관없이 학생의 현재 수준과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무학년제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가 2000년에 개발한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 공통 참고 기준(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이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 유럽 공통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등도 CEFR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년째 매우 활발히 해 오고 있다.

6. 형성 평가(formative assessment)가 강조되는 교육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학교 평가는 주로 결과를 평가한다. 그런데 학습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피드백(feedback)이 수반되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둔 형성 평가는 교육의 핵심이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한국 교육의 효율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역량을 교육에 도입하고자 할 때 이들의 평가에 대한 연구를 먼저 시작한다. 이게 맞는 순서이다.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평가의 개발이 받쳐주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대학 간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량 교육이 도입될 수 없다. 이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 위기는 평가 역량의 위기이기도 하다.

7. 초등학교의 영어 시수 비중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이의 경우에 틀리는 것, 창피한 것을 의식하지 않고 용감하게 말하여 보려는 성향은 단연 어른들에 비하여 탁월하다. 뇌의 측면화가 다 진행되고 나면 영어의 문장 구조 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게 된다. 이것이 영어의 유창성 발달에 장애가 된다.

그리고 영어를 지구촌 공용어 성격, 교수 학습 매개어로서의 성격, 어릴 때부터 영어로 의사소통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새로운 21세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초등학교 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중학교부터는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영어 코스가 제공되면 좋을 것이다. 그중의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 영어(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 중심의 과정과 BICS는 물론 학술적인 의사소통 능력인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까지 포함하는 과정이 동시

국가는 교육의 목표만 분명히 제시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단위 학교 교사의 몫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와 함께 진정한 다양화가 이루어져
학습자 개개인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학교 안에서 다양한 작은 학교들을 운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에 제공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단문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지 부담이 매우 큰 학술적인 내용의 교과 수업을 계속 하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장래 사회에 나갔을 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 생활 영어 하나만이라도 잘 갖추게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8.뇌 친화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뇌 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21세기 들어 어떤 교수 학습 전략이 뇌가 학습하는 방식과 잘 맞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뇌 친화적인 학습(brain-friendly/-based learning)은 종종 '물결을 따라서 수영하는 것'에 비유된다. 뇌 친화적인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생은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물결을 따라 수영함으로써' 많은 것을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수 학습법에 의한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어휘와 문법 학습에는 뇌 친화적이지 못한 점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교과서의 학습 설계도 뇌 친화적인 방식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뇌와 학습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끝맺으며

영어 교육에서 좋은 교과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좋은 교과서란 무엇일까? 단위 학교의 상황, 그리고 학습자들의 진로와 수준, 더 나아간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특성(예: 러닝 스타일, 다중 지능 등)까지 고려하고, 학습자의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로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고정된 서책형 획일적 교과서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자율화, 디지털화, 그리고 선택적 재구성이 용이한 모듈(module)형 교과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국가는 교육의 목표만 분명히 제시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단위 학교 교사의 몫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와 함께 진정한 다양화가 이루어져 학습자 개개인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학교 안에서 다양한 작은 학교들을 운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가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초 학문 연구를 충실히 하고,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필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연

교과서 집필로 본 수학과 교육과정



배종수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현장 학교에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기관이다. 의미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과서 편찬과 함께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교육과정의 개편을 위하여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또한 의미 있는 교육과정의 개편을 위하여 교과서 집필하였던 전문가가 과거의 교육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필자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4차례 연속으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교사용 지도서 포함) 편찬에서 총무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1학년과 5학년 책임 교수로서 편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단원을 직접 집필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교사용 지도서 포함) 편찬에서 또한 총무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1학년 책임 교수로서 편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포함) 편찬에서는 위원장으로서 각 학년의 단원을 직접 집필하면서 편찬 업무를 총괄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포함) 편찬에서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위원장으로서 각 학년의 단원을 직접 집필하면서 편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필자는 2000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연구소에서 수학을 직접 교육하면서 얻은 내용을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반영하면서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을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집필자로서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제한이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혹시 이론보다는 현실에 집중하여 현실 상황을 너무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Ⅱ.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1. 바람직하게 변화된 수학과 교육과정의 외형적인 틀

수학과 교육과정은 개편의 횟수를 거듭하면서 외형적인 틀이 바람직하게 변화되었다.

⑴ 교수요목의 시기: 1946년 광복과 함께 시작되었던 교수요목 시기의 교육과정은 오직 학년별 교육 내용만 열거하였다.

⑵ 1955년 제1차 교육과정: 산수과의 목표, 학년별 목표가 첨가되었다.

⑶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이 5대 영역별(수, 계산, 양과 측정, 도형, 수량 관계와 응용)로 구분하여 제시되었고, 지도상의 유의점이 첨가되었다.

⑷ 1973년 제3차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이 5대 영역별(수, 연산, 관계, 도형, 측도)로 수정되어 제시되었다. 미국의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3학년에서는 { },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6학년에서는 지수법칙을 비롯하여 정수, 음수, 일차함수 등을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다.

⑸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이 5대 영역별(수, 연산, 도형, 측도, 관계)로 다시 수정되어 제시되었고, 평가상의 유의점이 첨가되었다. 미국의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의 반성의 대안으로 수학 교육 문제 해결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3차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던 상당수의 내용이 삭제되고, 5학년에서만 합집합, 교집합, 공집합 등이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다.

⑹ 1987년 제5차 교육과정: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이 지도 및 평가상의 문제점으로 변경되어 제시되었다. 세계적인 수학 교육 문제 해결의 강조의 흐름으로 수학 교육 문제 해결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의 영향으로 도입되었던 내용 중에서 집합, 원소, 부분집합, 합집합, 교집합 등이 5학년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다.

⑺ 1992년 제6차 교육과정: 수학과의 성격이 첨가되고, 내용에서 학년별 5대 영역별(수, 연산, 도형, 측도, 관계)로 체계표가 제시되었고, 방법과 평가가 첨가되었다.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의 반성과 함께 문제 해결이 강조되면서 각국은 초등학교 교과 명을 산수(Arithmetic)에서 수학(Mathematics)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늦게 바뀐 것이 특징이다.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의 영향으로 도입되었던 내용 중에서 집합, 원소, 부분집합, 합집합, 교집합 등이 5학년 교육과정에 계속 제시되고 있다.

⑻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내용에서 학년별 5대 영역별(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로 변경되어 제시되었으며, 학년별 내용에서 용어와 기호,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이 학년별 내용 안에 첨가하여 제시되었고,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가 제시되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문제 해결은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학년 개념에서 단계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교과서의 이름도 1-가, 1-나, …, 6-나 등으로 바뀌었다. 내용 체계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기본 공통 과정으로 하면서 내용 분류 체계도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으로 바뀌었다. 5학년과 6학년에 주당 5시간 교육하는 것이 4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교육하던 집합, 방정식 등이 중학교로 이관되었다.

⑼ 2007 개정 교육과정: 내용에서 학년별 5대 영역별(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 해결)로 변경되어 체계표가 제시되었고,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이 학년별 내용 안에 첨가되어 제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후퇴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된 것이 특징이며 단계 개념에서 학년 개념으로 다시 바뀌었다. 내용 체계 역시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 해결로 바뀌었다. 또, 방정식, 반비례와 정비례 등이 다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이관되었다.

2. 교과서 집필로 본 기대하는 수학과 교육과정

⑴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한 교육과정 변화이기를 바란다

수학 교육과정의 변화는 국내 수학 교육의 변화 요구에 의한 것보다 외국의 수학 교육 변화에 부응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외국에서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수학 교육도 함께 운동이 일어나고,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이 반성하면 우리나라 수학 교육도 함께 반성하였다.

⑵ 수학 교육의 필요에 의한 교육과정 변화이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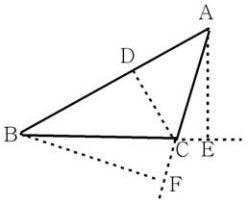
수학 교육과정의 변화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변화 요구에 의한 것보다 국내 일반 교육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학과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수학 교육에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⑶ 수학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육 내용을 어느 학년에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일에 급급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① 수학 용어의 명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활용되는 밑변은 밑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준(base)이 되는 기준변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밑변이라는 용어를 기준변으로 변경하여 교육과정에 고시한다면 교육하는 교사와 교육받는 학생에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에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첫째, 변 AB를 기준변으로 한다면 변 CD의 길이가 높이가 되어

(삼각형 ABC의 넓이)=(변 AB의 길이)×(변 CD의 길이)÷2

둘째, 변 BC를 기준변으로 한다면 변 AF의 길이가 높이가 되어

(삼각형 ABC의 넓이)=(변 BC의 길이)×(변 AF의 길이)÷2

셋째, 변 AC를 기준변으로 한다면 변 BF의 길이가 높이가 되어

(삼각형 ABC의 넓이)=(변 AC의 길이)×(변 BF의 길이)÷2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삼각형의 밑변과 같이 연구하여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용어가 많이 있다.

② 수학 개념의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분수와 대분수의 교육 계열을 생각할 수 있다. 가분수는 진분수와 대등한 분수의 종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분수는 $\frac{2}{4}+\frac{3}{4}=\frac{5}{4}$와 같은 진분수의 덧셈에서 파생되는 특별한 경우의 분수이다. 대분수도 $\frac{2}{4}+\frac{3}{4}=1\frac{1}{4}$과 같이 진분수의 덧셈에서 파생되는 특별한 경우의 분수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는 가분수와 대분수는 진분수와 같이 대등한 분수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③ 현실과 부합되는 용어의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화 과정'을 논의할 수 있다. 심화의 의미는 사전에서 '깊게 함' 또는 '깊어짐'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수학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심화 과정]을 '실생활에 활동' 또는 '문제 해결'로 규정하고 있다.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화 과정]은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수학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 수학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수학을 잘못 교육하여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학생들에게 '수학은 어렵다.'라고 인식되어 있다면
이는 수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화 과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그릇의 들이를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7차, 3-나).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각형이 활용된 예를 찾을 수 있다(7차, 4-나).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학과 [심화 과정]에서 '기본과정에서 습득한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활동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게 하고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데 그 중점을 둔다.'로 규정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Ⅲ. 왜 '수학은 어렵다.'라고 할까?

'수학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 수학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수학을 잘못 교육하여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학생들에게 '수학은 어렵다.'라고 인식되어 있다면 이는 수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나 사회가 '수학을 쉽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교육하기 위하여 수학과 교육과정을 개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학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수학 교육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바람직하게 유도하려고 하는 수학 교육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학 교육에서 '왜'는 논리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질문이며 수학 교육 방법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혼합계산 15-12÷3에서, 교사가 나눗셈을 뺄셈보다 먼저 계산하도록 한 이유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나눗셈은 뺄셈보다 먼저 계산하도록 약속했다.'는 식으로 주입식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논리성과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수학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괴물로 인식될 위험을 안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에 수학을 좋아한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30% 이하이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각 반에서 수학을 좋아한다는 학생들이 3명 이내가 되며, 고등학교 2학년이면 90% 학생들이 수학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편 관련 전문가들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서 개발 경험을 통해서 본 사회과 교육과정



모경환 (서울대학교 교수)

Ⅰ. 교육과정과 교과서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과별 목표를 명시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 및 방법, 평가를 제시한 강행 규정이자 표준 규정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국가의 학교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일종의 설계도에 비유한다면 교과서는 그러한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구체적인 구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교과서는 규범적, 강령적, 추상적인 교육과정을 교재의 형태로 드러낸다.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일반 대중은 교과서를 통해 비로소 교육과정이 그리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상 혹은 미래상을 접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학습 자료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교과서는 교실 수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이다. 학교급이나 교과를 막론하고 교과서는 교사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준거이자 교재이다.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과서를 주요 학습 교재로 여기며, 교과서에 제시된 사실과 개념은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학부모와 학생의 신념은 교과서에 의존하는 교수 학습, 학급 학교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의해 강화된다.

이처럼 교과서는 교육과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집필되며, 대부분의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핵심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재를 개발한다는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과서 집필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적 이상으로 가는 교량을 건설하는 작업이자, 교실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과 평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이다.

교육과정이 법적 고시로서의 지위를 갖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교과서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주기적 전면적 일시적 중앙 집중적 방식에서, 수시 개정, 부분적 개정, 점진적 개정, 교사 참여 확대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교육과정 서술의 대강화가 이루어지면서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 교과서 집필자, 학교, 교사의 의사 결정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과정 개정 방식 및 서술 방식의 변화는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른 규모와 성격의 도전이 되고 있다. 이 글은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집필이라는 과정을 통해 경험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실천적 지식의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Ⅱ.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1. 교과 영역 간 갈등의 재현

교과목 수의 조정이나 시수 배분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교과목의 수나 시수 문제는 일선 학교의 직무 분담, 대학의 교사 양성 체제 개편, 교사 수급의 과소 문제 등과 같은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사회과는 이와 관련하여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교과이다. 우선 다른 교과와 마

찬가지로 학습 부담 경감 및 심화 학습 촉진을 위한 학습 내용 적정화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교과 영역들과 교과목 수 및 시수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일이 매 개정기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범주(scope)의 축소나 다른 교과(도덕)와의 통합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으로 사회과는 교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회, 지리, 역사 영역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학문적, 교육적 논의를 통하여 교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타협과 미봉책에 의한 해결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영역 간 반목과 소통 단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교육과정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 영역 간 단절 문제는 교과서 집필 단계에도 그대로 재현된다. 교육과정상의 학습 내용 구성이 사실상 일반 사회-지리-역사의 기계적 결합에 그치고 있어, 교과서 집필진 구성이나 집필 영역 분담도 분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통의 단절과 시간 및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학년 내에서도 영역별 구분이 뚜렷하다 보니 각 영역 담당 집필진 간 의견 교환이나 교차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교과서의 내적 통일성이 떨어지거나 내용 중복으로 인한 수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 대강화의 딜레마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이루어지면서 개념적, 논리적으로는 교과서 개발에 상당한 자율권과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이는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여, 교사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현행 교육과정 문서 및 교육과정 해설서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10년부터는 교과서의 분량이나 가격 등에 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 문서나 해설서는 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현행 교육과정이 성취기준 혹은 수행 기준 제시가 아니라 내용 요소 제시에 치중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 요소의 수준이나 분량에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어, 집필자의 자율권이 기대만큼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수준 및 양의 적절성 문제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3. 수준 및 분량의 적절성 문제

학습 내용의 양과 수준은 학습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 내용이 지나치게 평이하거나 적으면 동기를 유발하기 어려우며, 적정 수준 이상으로 어렵거나 많을 때는 학습 흥미를 떨어트리고 학습 실패를 조장하게 된다. 아울러 지나치게 어렵거나 많은 양을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고차 사고력 학습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과의 교과목들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교과목으로 손꼽힌다. 사회과가 '어렵다'는 인식은 학년 수준에 적절하지 못한 수준과 과도한 양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경험은 아니다. 대다수 일선 사회과 교사들도 학년 간 관련성의 부족, 내용의 난이도 과다로 인한 적절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내용의 수준 혹은 분량의 적절성에 문제가 관찰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는 아름다운 우리 국토,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등, 총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에 대해 교육과정 해설서는 【표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학습 요소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참여의 중요성, 제도화된 참여 방법, 합리적인 참여, 헌법의 의의, 헌법에 나타난 국가 조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등의 법률과 우리 생활,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의 주요 기능과 권한, 삼권 분립의 의미와 의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 인권 존중, 우리 사회의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

의 의무, 공공의 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의 중요성 인식과 갈등의 민주적 해결 등이다.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는 대단원 하나를 이루게 되며, 하나의 대단원은 대개 6~10차시 분량으로 구성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이상의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겐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분량 또한 정해진 시수 아래 소화해 내기에는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예를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 변동과 문화'의 세부 내용 중 일부를 교육과정 해설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대개 교과서에서 소단원 1단원 분량으로 집필되어야 하는 분량이다.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요 내용 요소로 사회 변동의 배경과 특징,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정해진 분량 및 시수에서 다루기에는 광범위한 개념과 현상을 망라하고 있다.

【표 1】 수준 및 적절성의 문제 사례

◇ 초등학교 6학년 (4)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이 단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적 정치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 규범 및 주요 국가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치 생활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자 설정되었다.

헌법과 주요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이해하고,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자각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고등학교 1학년 (6) 사회 변동과 문화

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변동의 양상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변동의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화, 도시화뿐만 아니라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한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는 현대 사회 변동의 양상을 통계 자료,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례 등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집필자들은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언어와 사례를 사용하여 해당 내용 요소를 제시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정된 지면 안에서 해당 내용을 모두 소화해 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된다. 내용 요소의 추상성이 해당 학년의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높거나, 내용 요소의 양이 정해진 지면에서 전달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는 고스란히 집필자의 부담이 된다. 교과서 서술이 관련 개념에 대한 사전적 서술에 그치거나, 해당 학년이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어렵고 교실에서 수행 불가능한 학습 활동 및 탐구 과제가 제시되는 것은 많은 경우 내용의 적절성 문제에서 출발한다.

4. 조직의 체계성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선정 및 조직에 있어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원리는 조직의 체계성 문제이다. 즉, 해당 교과의 핵심적인 지식, 기능, 가치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며, 학교급 및 학년 간에 내용의 계열성

과 논리성이 갖추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발달 순서나 사전 학습 및 이후 학습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 조직의 체계성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경우 심화 학습이 아니라 무의미한 반복 학습에 그치고 만다.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 일반 사회 영역의 범주와 계열을 도식화하면 【표 2】와 같다. 이를 통해 일반 사회 영역의 핵심적인 내용 요소가 무엇이며 학년 및 학교급에 따라 전개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열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우선, 5학년 및 8학년에서 역사 영역의 독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용 영역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년에 따라 주제 및 세부 주제를 제시할 뿐, 각 핵심 내용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심화 확장되는지 명료하지 않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내용 요소가 단순 반복되거나 학년 간 학교급 간의 분절이 발생하게 된다.

【표 2】 일반 사회 영역의 범위와 계열

학년	일반 사회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4학년	•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	•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4학년
5학년	–			
6학년	•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7학년			• 개인과 사회생활 • 문화의 이해와 창조	• 우리의 생활과 법 • 인권 보호와 헌법
8학년	–			
9학년	•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 시장 경제의 이해 •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		
10학년	•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 경제 성장과 삶의 질 • 국제 거래와 세계화	• 사회 변동과 문화	•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III. 개선 방안

교수 학습이 교과서에 크게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과서의 질적 향상은 사회과 수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접근 전략 중 하나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집필된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믿음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내용 요소의 양 및 수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이나 선행 학습 수준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시수 배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해결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수 학습이 교과서에 크게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과서의 질적 향상은 사회과 수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접근 전략 중 하나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집필된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믿음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내용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계열성을 강화해야 한다. 양과 수준의 적절성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교육과정의 계열성이 허술한 것에서 유발된다. 우선 사회과의 핵심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학년별, 학교급별로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조직해야 한다. 또한 교과 간, 영역 간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특히 초등 영역에서 사회과와 도덕과와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을 감안하건데 두 교과 간 내용 중복 문제의 해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교육과정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학습자의 삶은 통합되어 있으며, 대학 학문의 영역에 따라 지나치게 과목과 내용 영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학습자의 학습이나 인식을 대학 학문의 경계에 따라 범주화하는 것은 논리적 전도이다. 특히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습득하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영역 간 산술 평균적 분담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정치적 합의와 교과적 숙의의 분리가 필요하다. 현재 시수 배분의 정치적 투쟁 때문에 교과 전문가들의 협의나 협력 분위기가 전혀 형성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교과 편재나 시수 배분의 문제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 데 반해, 교육과정의 개발은 교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숙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정치적 문제와 교육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다양한 이해 관계의 수렴과 조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교과서 및 수업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 집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학생 교사 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교과서 집필자에게 매우 불친절하다. 즉, 교육과정이 교과서 혹은 수업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쳐 교수 학습으로 실현된다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더욱이 최근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교육과정이 지닌 강령적 규범적 성격이 때로는 교과서 혹은 수업 수준으로 실천할 수 없거나, 그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학습자나 시수 편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과 분량의 내용 요소 제시는 이를 예증해 준다.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선정 및 조직에서 이미 교과서와 수업에 대한 구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영역, 교과서 집필 영역, 수업 영역의 전문성의 경계를 허물고 인적 교류와 소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연

급변하는 사회에서 과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권재술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Ⅰ.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

현 공교육 위기는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교육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 결과론적으로 옳은 말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에 나갔을 때에는 이미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 버린다면 그런 지식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미래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데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엄격히 말해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많은 미래학자가 미래를 예측하지만 그 예측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미래학자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어떻게 학교 교육에서, 교사나 교육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학교 교육의 내용은 과거의 지식이고, 교사는 과거만 경험한 사람들이다. 과거만 경험한 사람이 과거의 지식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다. 이것은 분명 모순이다. 그런데 이 모순이 바로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역설이 또한 가능하다.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급변해야 한다면 학교라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학교 교육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누구나 다 아는 것과 같이 고전(古典)이라는 것이 있다. 무엇이 고전인가? 오랜 세월에 걸쳐 변함없이 인생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지식이 바로 고전이 아닐까? 종교의 경전은 차치하고라도 동양의 공자, 서양의 플라톤, 우리나라의 퇴계 이황의 가르침은 휴대 전화가 일상화되고 우주여행이 가능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도 유용한 지식이다. 그 고전에 있는 내용이, 그 고전이 집필되던 시대의 사람, 아니 그 고전을 집필한 바로 그분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의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며 인생의 의미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하는 사회에서도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다. 이 변하지 않는 지식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중심에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관통하여 존재한다. 교육, 특히 공교육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에 두고 시대의 특성을 살려야지 그러한 중심 내용이 없이 시대 변화에 따라 춤을 춘다면 안정적이고 올바른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학원은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다.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원도 평생 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초 중등 교육, 대학 교육, 평생 교육, 학원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초 중등 학교 교육이 기초 교육을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학교가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사교육이 사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이며 학원이 학교 교육을 침해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는 언제부터인가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무한 경쟁 관계가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에도 국립과 사립,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던 것이 영역 구분 없는 무한 경쟁을 도입하게 되면서 국립과 사립의 구분도 없어지고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의 구분도 없어져서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목표를 망각한 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만 난무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초 중등 교육에서 사교육의 문제도 이러한 역할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혼란은 바로 초 중등학교 교육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 변화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단적인 예가 너무나 빈번히 바꾸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정착이 되려면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을 합하여 최소한 12년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5년이 멀다 하고 바꾸어 왔다. 최근에는 수시 개정이라는 미명하에 새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가 현장에 투입되기도 전에 또 다른 교육과정을 만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조령모개 식으로 바뀌어서야 어떻게 학교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초 중등 학교 교육은 국민 기초 교육을 그 중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초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학 교육은 초 중등 학교에서 이룩한 기초 교육에 바탕을 두고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원은 학교 교육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의 역할이 잘 분담이 된다면 서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Ⅱ. 안정적인 과학 교육과정

넓은 의미로 보면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고시한 법규로서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 중등 교육과정은 교과의 편제, 국가 교육 이념,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평가 및 지도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에 이미 교과서에 들어갈 단원명과 그 세부 제목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에 시비를 걸게 된다.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것이다. 국가의 헌법이 자주 바뀐다면 그 나라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의 개정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인류가 만든 가장 믿을 만한 지식의 체계이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과학 교과도 그 내용의 체계가 매우 논리적이고 잘 조직화되어 있다. 과학 교과, 특히 초 중등 과학 교과는 과학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라는 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다. 기초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적용되기 때문에 학문이 발전해도 기존의 기초 개념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는 것이다.

물리 교과를 예로 든다면 현대 물리학에서 많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고전 물리학을 대체하여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뉴턴의 고전 역학의 기본 개념은 초 중등학교 과학 교과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학 교과에서 추구하는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의 질서를 찾는다는 목

표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 미래에도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물리 교과에서 가르치는 관성, 에너지, 질량, 가속도 등의 기초 개념은 물리학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나 배워야 할 중요한 기초 개념이다. 이런 기초 개념은 시대가 변해도 언제나 가르쳐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마다 자기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성이라는 개념을 가르칠 때 옛날이라면 굴러가는 무거운 바위를 예로 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달리는 자동차나 날아가는 대포알을 예로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교수 방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교사는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관성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킬 수도 있지만 어떤 교사는 실험을 통하여 이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변해야 할 것은 교육의 형식이지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교육과정에 지도 방법이나 평가 방법까지 포함한다면 교육과정 개정은 5년이 아니라 1년도 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교육의 이념, 목표, 핵심내용만 포함한다면 교육과정 개정 주기는 10년도 짧다.

교육의 종착점은 학교의 교실이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하고 있는 활동이 바로 교육의 종착점이다. 아무리 대단한 개혁이라도 교장실까지만 와서는 개혁은 의미가 없다. 교사를 통하여 교실에서 구현될 때 개혁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편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편찬하여 학교에 배포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을 교사가 이해하고, 교사가 교실에서 실천을 할 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사 양성과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초, 중, 고를 거쳐서 내용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앞 학년에서 배운 내용과 다음 학년에서 배울 내용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야 학습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논리적 구조가 잘 짜여 있는 수학과 과학 과목인 경우에는 이 논리적 위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최소한 12년이 지나야 한 주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10년도 지속할 수 없는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어떻게 공교육의 안정을 바랄 수 있겠는가?

교육과정, 특히 기초 교육을 그 본질로 삼고 있는 초 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너무 빨리 변해서는 안된다.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일단 만들어졌으면 크게 잘못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동안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바꾸지 않고도 시대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교육 정책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변화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줄이는 것이 교육이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안정적이어야 긴 안목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진화하는 과학 교과서

교육과정이 교육의 이념, 목표, 핵심적인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 이념과 목표에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제1차적인 교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더 중요하다. 더욱이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얼굴이고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상세화시켜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다. 교육과정이 정책 입안자, 교육학자, 교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과정이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교과서는 그 범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교육 정책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변화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줄이는 것이 교육이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안정적이어야 긴 안목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내에서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교육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라면 교과서는 내용물을 채우고 포장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입는 옷이 다양하듯이 같은 교육과정이라도 교과서의 모습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물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학습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과서는 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합하고 학습에 필요한 소재를 정선하여 제시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형성 평가)도 포함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충 자료도 있어야 한다.

과학 교과는 같은 내용이라도 그 표현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과학의 개념과 이론은 탈시대적이고 탈지역적이고 탈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표현한 과학 교과서는 시대의 특성, 지역의 특성, 문화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갈릴레이는 관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장치를 바다 깊이 있는 잠수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 그는 잠수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잠수함이 실제로 이동하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관성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그가 지금 살아 있다면 아마도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우주선을 예로 들었을 것이다. 우주선이 잠수함보다 훨씬 더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일정하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 중에서 지구 과학이나 생물 교과는 지역과 시대적인 특성이 더욱 잘 반영되어야 할 교과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종류와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가 독특하기 때문에 교재로 사용하는 표본이나 사례가 달라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같은 과학 교육과정의 내용과 목표에 바탕을 두고 개발한 과학 교과서라도 다양한 과학 교과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과정에는 핵심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세한 내용을 비롯하여 지도 방법과 평가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많은 수의 과학 교과서가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할 뿐인 것이 현실이다.

검 인정 교과서 제도가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장려하고, 점차 우수한 교과서로 진화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이념, 목표,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종수 불문하고 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했을 때 질적 수준이 낮은 교과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시장의 원리에 의해 질 나쁜 교과서는 결국 퇴출될 것이다.

좋은 교과서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종수, 구조, 판형, 지질, 색도 등에 대한 자율이 필요하다. 교과서의 개정도 작은 수정에서부터 큰 체제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출판사 자율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자율과 선정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는 결코 좋은 교과서의 출현은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외적인 규제가 철폐되거나 과감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출판사는 현장 학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혁신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과서 정책을 이렇게 펴 나가야 교과서의 질이 점차 발전하지 지금과 같이 엄격한 검 인정 절차를 집행

하게 되면 출판사들은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과감한 시도를 하지 못하고 심사만 통과하기에 급급하여 좋은 교과서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교과서 출판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교과서 선정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다면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다양하고 참신한 교과서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Ⅳ.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안정적이어야 하고, 교과서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가변적이어야 함을 과학 교과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비록 과학 교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과에 걸쳐서 동일한 주장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변화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 좋은 변화가 있는 반면 위험한 변화도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는 기회도 많이 찾아오지만 그 위험성도 증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가의 경영은 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로부터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고 견고히 지켜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 사회가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바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위험을 줄이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개혁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교육 위기가 오지 않았는지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운명 공동체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 교과서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더라도 교과서는 바뀔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난 일이 없다. 교육과정이 5년이 멀다 하고 바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위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이라는 개념까지 도입하여 교과서가 바뀔 겨를도 없이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어떻게 교육과정 변화 없는 교과서 개편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교육 개혁은 곧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발상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교육의 본질과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변해야 하는 것은 교육의 형식과 교수 방법, 사용하는 교재이다.

변하는 사회에서 변해야 할 것은 교과서이지 교육과정은 아니다. 교육과정이 변해야 할 필요는 국가 변란이 나거나 학제가 바뀌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의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교과서가 바뀌지 않을 수는 없다. 교과서가 바뀌면 관련된 교재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교재 개발 업체와 학원이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의지이지만 정부가 펴는 정책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학 교육을 포함한 한 나라의 교육이 안정적이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교과서는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안정과 변화의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에 처하거나 변화에 뒤처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과 변화의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

교과서 집필로 본 음악과 교육과정



석문주 (경인교육대학교)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교과서는 같다고 생각이 지배적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과서의 새 편찬으로 연결된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새로운 교과서가 편찬되면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자신만의 수업으로 재구성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교과서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한다. 음악 수업의 경우 이러한 걱정과 고민이 더 많아진다. 초등학교의 경우(중등 교사는 음악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서 음악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욱 높다. 따라서, 음악 교과서에 함축된 교육과정을 이해하여 자신의 수업 상황에 맞게 가르치기보다는, 단순히 교과서와 지도서에 있는 내용과 학습 활동만을 그대로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악 교과서는 교사에게는 학생 지도의 지침이 되며, 학생에게는 학습할 내용의 중심이 된다. 음악 교과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 내용의 학습에 필요한 음악적 자료 악곡, 음악 학습 내용 및 활동, 음악 악기 및 교구, 평가 자료, 음원을 각각의 음악 교수 학습 상황에 맞도록 제시한다. 음악 교과서 편찬자들이 음악 교과서를 개발할 때 처음 하는 작업은 개정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여, 이를 어떻게 교과서에 재구성하여 함축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 교육적으로 타당한 학습 내용을 선별하고, 학교급별에 알맞게 학습량을 배분하고 적절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음악 교육에서 지나친 '교과서 의존적인 음악 교육'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바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정해져 있고, 국정의 경우 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검정의 경우 검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악 교과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형태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가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과서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최은식, 20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과정의 개정 때마다 계속되어 왔다.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국가가 정해 준 동일한 교과와 동일 내용으로 운영되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부족하고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박순경, 2010)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흥미, 진리, 적성에 따른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음악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과 성격, 음악과 목표, 음악과 내용 체계, 음악과 교수 학습 방법, 음악과 평가로 구성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이 체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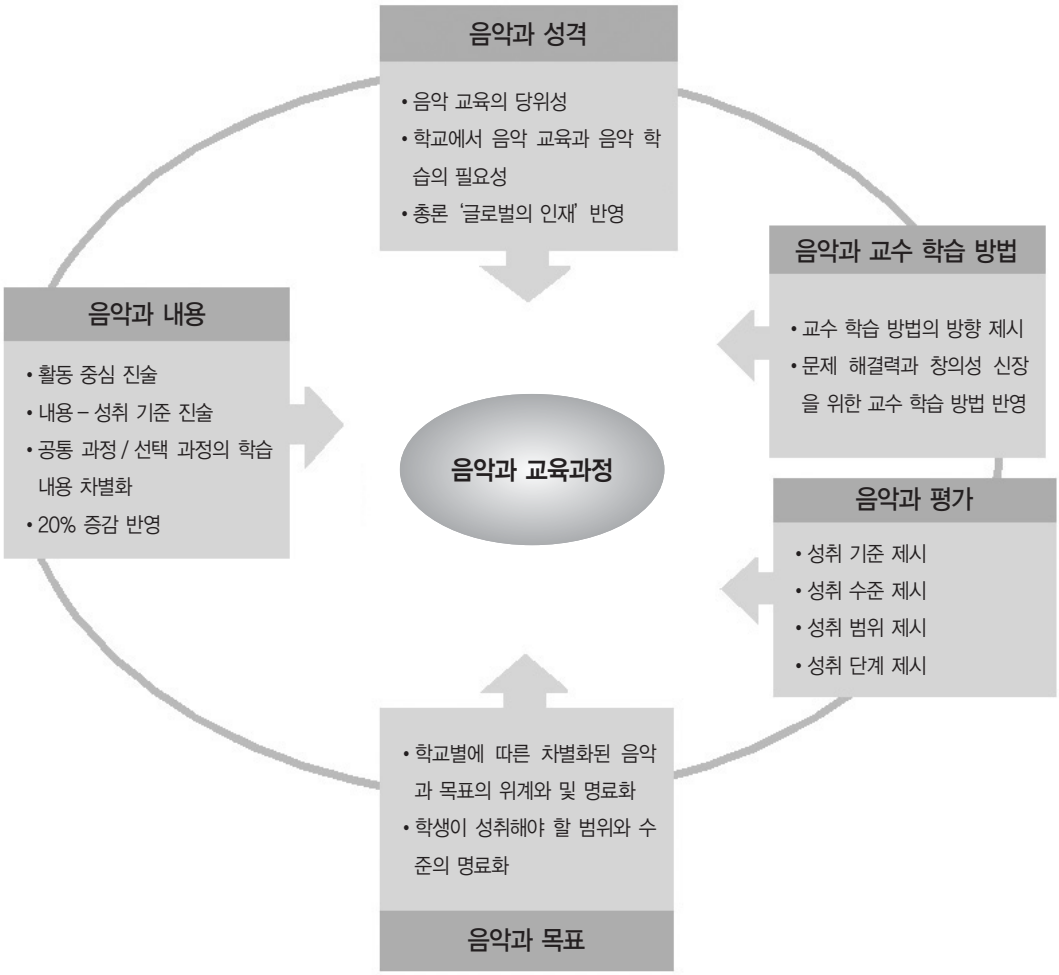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그림 1】 참조).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바탕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음악과는 '활동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부흥하고, 학생의 흥미, 진로, 적성에 따라 자율적인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최소 필수 학습 내용(minimum essential)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과 학습 요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 간, 학교급별 간의 계열성, 공통 과정과 선택 과정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림 1】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국가가 정해 준 동일한 교과와 동일 내용으로 운영되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부족하고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흥미, 진리, 적성에 따른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Ⅰ. 음악과 성격과 목표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음악과에서 창의성 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음악과 성격과 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음악과 성격에서는 음악의 본질, 음악의 역할, 음악의 가치를 통한 음악 교육의 필요성, 음악 교과의 본질을 통한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의 목적, 학교급별에 따른 음악 교육의 중점 지도 방향 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한다.

음악과 성격에서는 음악 교육을 통한 미적 감수성, 창의성, 음악적 성취, 정서 발달, 사고력 발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총론을 반영하여 음악 교육이 개인적, 사회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음악은 삶의 일부이며 삶의 질을 고양시키며, 창조하고 소통하는 의미를 반영하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음악과 목표는 총괄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로 차별화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총괄 목표는 음악을 통하여 음악적 성취를 이루고,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사회 속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통 과정과 선택 과정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를 제시한다.

Ⅱ. 음악과 내용 체계

음악과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진술하는 내용 영역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활동 중심'과 '참여 중심' 음악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내용 영역을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

음악과 내용영역은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음악 학습의 핵심 내용(key learning elements)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은 '활동', '이해', '생활화'로 제시하였는데 학교의 모든 교육은 실생활 속에서의 적용, 또는 활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악 교육에서 '생활화'를 독립적인 내용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생활화'는 음악의 모든 학습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내용 체계에서가 아니라 음악 교과의 성격과 목적을 나타내는 '성격과 목표' 수준에서 진술하도록 한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활동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이해 영역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말고 활동과 통합하여 가르칠 것을 계속하여 강조하여 왔으나 교과서나 실제 음악 수업에서는 '이해'를 음악적 활동과 분리하여 음악 수업을 '이론' 수업으로 여기는 문제점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 영역에 '이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최소 필수의 학습 내용과 학습 요소를 제시한다.

음악과 내용은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최소 필수(minimum essential)' 학습 내용과 학습 요소를 제시하도록 한다.

음악과 내용 선정은 학년별 또는 학년군으로 제시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학년별로 제시하는 경우, 학년별에 적정한 활동을 선정할 수 있어서 교사에게 수월하며, 학년군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학년군으로 포괄적으로 적정한 활동을 제시하게 되어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정의 축소로 인하여 선택 과정(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을 9년간의 학습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조직하여야 할 것이며, 공통 과정과 선택 과정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될 때마다 내용의 과다가 문제가 되어 왔는데,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현행 대비하여 80% 수준으로 20%의 증감이 가능하여 내용을 조직하도록 총론에서 제안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각 학교에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예술 과목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20%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에서의 균형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침이 요구된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80%의 수준을 기본(표준)으로 하고, 각 학교의 실태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20%의 증감에 대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3. 내용-성취 기준(contents-achievement standards) 방식으로 제시한다.

내용 영역은 '내용-성취 기준 진술'의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내용 기준은 학생들이 학습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성취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학생들이 음악을 통하여 습득해야 하는 음악적 내용과 기능을 진술하고, 어느 수준, 어느 정도까지 배우는가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서 교사에게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내용에서는 음악과의 공통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성취 수준의 차이를 둠으로써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따라 학습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이는 20% 증감 운영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하여 재정비를 해야 한다.

공통 과정이 9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학습의 수준 및 범위를 최적화하고 내용을 재구조하여야 한다. 공통 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습 내용의 심화라는 부분을 고려한 선택 과목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음악과 선택과정에서는 학생의 수준별, 진로별, 관심별 선택에 따른 이수 체제이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내용의 폭과 깊이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여 다양하게 편성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 과정에서는 소양으로서의 음악, 진로로서의 음악, 취미나 여가로서의 음악 활동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요구, 학교의 상황 등을 토대로 각 과목의 특성, 공통 과정과 연계한 학습 내용,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을 설정하고 각 교과목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각 과목 간의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의 이해'와 같이 교양과 소양으로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음악 이론'과 같이 진로를 음악 분야로 선택할 학생들을 위한 심화 과정, 그리고 기악반이나 합창반, 또는 그룹 악기 지도와 같이 음악을 취미나 여가로 즐기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구분하여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골고루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음악과 교수 학습 방법

2007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교수 학습 방법은 '교수 학습의 방향', '교수 학습의 계획', '내용 영역별 지도'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강조하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음악과 교수 학습 방법의 방향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내용 영역별 지도'는 교육과정의 실현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과정 해설서나 교과서 개발 시에 제시하고, 이번 교육과정은 '내용'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

Ⅳ. 음악 교과서 개발 방안

음악과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과서이며, 대부분의 교사가 교과서에 많은 의존을 한다. 음악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과의 경우, 집중 이수와 시수의 증감 운영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이 예상되므로 여러 형태의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검정 제도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나 교사가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평가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의 평가 계획, 내용 영역별 평가, 결과 활용으로 구성된 '평가'항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용' 영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용-성취 기준' 진술은 학년군에서 성취하여야 할 평가 기준, 평가 내용, 평가 범위, 평가 수준 등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음악과 평가의 경우, 현장에서 평가 방법, 평가 기준, 평가 도구 등에 대하여 매우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내용 진술에 따른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성취 범위, 성취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

참고 문헌

- 박순경(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탐색. 제2차 교과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포럼(pp. 23~72, 2010. 5. 26.).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위원회.
- 이화성(2010).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교과서연구 59, pp. 1~10.
- 천세영(2009). 국가 교육과정 개혁의 쟁점과 과제. 교과서연구 57, pp. 51~58.
- 최은식(2010).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에 대한 토론. 제2차 교과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포럼(pp. 228~232, 2010. 5. 26).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위원회.

교과서 집필로 본 체육과 교육과정



조미혜 (인하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면서

'교과서연구'로부터 본 특집 원고를 청탁받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체육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지?'이었다.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교과서 집필에 관여하게 된 것이 대학원 석사 과정 때의 일이니 벌써 25년 전의 일이다. 체육 교과서 집필 관련 나의 첫 기억은 1980년대 중반 서울대학교 석사 과정 시절 지도 교수님이 검정인 중 고등학교 체육 교과서 집필자 중 한 분이셨는데 내게 교과서 관련 여러 자료 수집과 글쓰기 등의 보조 업무를 맡기셨다. 그때는 정말 체육 교과서 집필이 무엇인지 그 의미도 모른 채 어깨 너머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1990년 중반 한국교육개발원 체육교육실에 첫 직장을 잡으면서 제6차 초등학교 5, 6학년 체육 교과서를 개발하는 총 책임을 맡게 되었다. 물론 이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국의 훌륭한 집필진들 및 연구진들과 함께하는 작업이라 많은 분의 도움으로 교과서를 개발하였지만, 초등 체육 교과서는 전국에 오직 한 종류라는 국정 교과서가 주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다. 그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근무하며 다시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과 뒤이어 초등 체육과 교과서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 체육 교과서 검정 업무도 함께 병행하면서 늘 교과서와 관련된 일 속에서 파묻혀 지내던 나날이었다.

가장 최근에 수행한 체육 교과서 집필은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이다. 학교급별, 학년별 연차적으로 검정을 하기 때문에 벌써 몇 년째 체육 교과서 집필 과정에 있다. 최근에 체육 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과거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정 교과서 개발 책임을 맡았을 때와는 달리 집필이 조금 편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가 아닌 검정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필자는 매우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곧 이것은 나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자유라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짜여진 기본 틀 내에서의 아주 조그만 자유였을 뿐이었다.

첫 집필 때나 최근이나 교과서 작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체육과 국가 교육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검정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검정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7a)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과용 도서의 편찬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기 위하여'라고 검정 기준 첫 장에 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용 도서를 만들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않는 교과서는 검정 심사에서 제외되는, 즉 탈락의 대상이 되는 첫 조건인 셈이다.

따라서,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육 교과서 집필자에게는 거의 바이블이나 다름없는 문서이다. 실제로 체육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늘 옆에 끼고 사는 책이 바로 체육과 교육과정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체육 교과서를 개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과 국가 교육과정에 대

한 바람직한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본 특집을 기획한 '교과서연구' 편집진의 의도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진취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를 계기로 최근 교과서 집필자의 눈으로 본 체육과 국가 교육과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1. 현 체육 교육과정의 이해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b)이 총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체육과 각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면에서 대폭적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체계에서 고수해 왔던 '육상, 체조, 수영, 개인 및 단체 운동…….' 등과 같은 스포츠(또는 운동)의 범주별 내용 체계를 변화시켜서 이를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내용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유정애(2007)는 학교 체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행동 변화, 즉 지속적인 운동 참여의 이유는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요인이 더 존재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은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이 신체 활동이 가지는 '가치'(value)를 달성하기 위함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체육과 교육과정의 첫 번째 특징은 기존의 스포츠 중심의 내용이 확대되어 스포츠, 무용, 운동 등을 모두 포함한 신체 활동으로 옮겨 갔다는 것이며, 두 번째 특징은 교육의 지향점이 기능 습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교육과 함께 신체 활동의 가치를 함께 교육한다는 데 있다.

신체 활동 가치에는 '건강'(health), '도전'(challenge), '경쟁'(competition), '표현'(expression), '여가'(leisure)가 포함될 수 있으며 새 체육과 교육과정은 이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 대영역인 건강 활동은 건강(health)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으로, 건강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며, 개인 및 사회의 건강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활동으로 구성되고 있다. 두 번째 대영역인 도전 활동은 도전(challenge)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으로, 개인의 신체적 수월성이나 타인의 신체적 기량에 도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도전 활동은 개인의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현재 직면한 장애 요인과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세 번째 대영역인 경쟁 활동은 경쟁(competition)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으로, 게임 또는 스포츠 경기 상황에 존재하는 상호 경쟁적 요소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쟁 활동은 집단 간 경쟁을 전제로 경쟁에 필요한 경기 수행 능력과 다양한 인지 전략을 익히는 단체 활동으로, 팀원 간 협동심과 리더십, 스포츠맨십 등이 사회적 가치 덕목을 중시한다. 네 번째 대영역인 표현 활동은 표현(expression)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으로, 생각과 느낌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자신 및 타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말한다. 끝으로, 다섯 번째 대영역인 여가 활동은 여가(leisure)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체 활동 중심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며 바람직한 여가 문화를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가 활동의 교육 내용은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여가 수행에 필요한 운동 능력을 배양하며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문화, 우리나라 전통 여가 문화, 지구촌의 여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체육 교과서 개발

현재 체육 교과는 2010년 말에 교과서 검정이 진행될 예정인 '중학교 3 체육 교과서'와 '고등학교 2, 3 학년 선택 과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이 끝난 상태이다. 교과서 집필을 하면서 "이번에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의 가치인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가치를 어떻게 체육 교과서에 담아내는가?" 하는 것이 초기 모든 체육 교과서 집필자의 관심이고 관건이었다. 또한 새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대하여 '다섯 가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신체 활동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 교과서에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집필자 간의 논의를 필요로 하였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집필자들이 새로운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가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가치를 더욱 지향하며 운동이나 스포츠는 과거보다 덜 중요시되는 것인가? 그래서 교과서에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과거보다 덜 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필자와 함께 교과서 집필 작업에 참여한 초 중 고등학교 현장 교사들 역시 똑같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다.

수없이 많은 교과서 집필 회의를 통하여 새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새롭게 변화된 교육과정을 교과서에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집필자들은 그동안 주말과 밤낮 없이 많은 구슬땀을 흘렸다. 실제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고 고백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담아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로는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내용'에 다음과 같은 신체 활동의 선택 예시표(【표 1】 참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7학년의 경우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내용 요소 포함)이라는 내용 기준을 1년 동안 모두 지도하기 위하여, 오른쪽에 있는 제시되어 있는 신체 활동의 선택 중에서 대영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신체 활동을 선택하면 된다. 또는 신체 활동의 선택 예시표에 적합한 신체 활동이 없는 경우, 학년 또는 교과 협의회를 통하여 예시표에 없는 다른 신체 활동을 선택하여도 된다. 즉, 단위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기준(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내용 요소)을 필수로 지도하기 위하여, 학년별 신체 활동의 선택 예시표에서 각 단위 학교에 적합한 신체 활동의 종류와 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학년별 신체 활동의 선택 예시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7학년 신체 활동의 선택 예시
건강 활동	체력 관리	건강과 체력 관리	웨이트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 스트레칭 등
	보건과 안전	건강 생활과 환경 안전	약물 및 기호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환경 오염 예방 활동
도전 활동	기록 도전	속도 거리 도전	트랙 경기, 필드 경기, 경영 등
경쟁 활동	영역형 경쟁	영역형 경쟁	축구, 농구, 핸드볼, 하키, 럭비, 풋살 등
표현 활동	창작 표현	심미 표현과 창작	창작 체조, 음악 줄넘기, 피겨 스케이팅 등
여가 활동	여가 문화	청소년 여가 문화	인라인 롤러, 스포츠 클라이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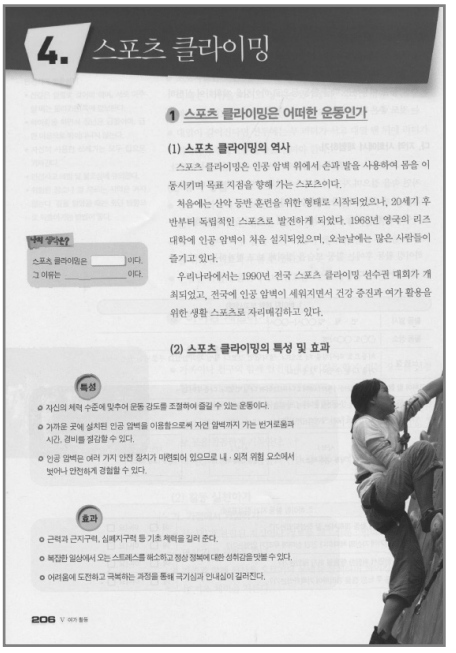
하지만, 교과서 집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신체 활동의 선택 예시표에 적합한 신체 활동이 없는 경우, 학년 또는 교과 협의회를 통하여 예시표에 없는 다른 신체 활동을 선택하여도 된다고 하였지만,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교과서에 선택하여 집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혹시 교과서 검정 심사 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활동을 넣었다고 해서 '심사에서 탈락'되지나 않을까 하는 집필자들과 출판사 측의 우려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검정을 통과한 체육 교과서를 살펴보면 각 가치 영역별 교과서에 제시된 신체 활동은 【표 1】에서 보여 준 선택 활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체육과 교육과정의 첫 번째 특징은 기존의 스포츠 중심의 내용이 확대되어 스포츠, 무용, 운동 등을 모두 포함한 신체 활동으로 옮겨 갔다는 것이며, 두 번째 특징은 교육의 지향점이 기능 습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교육과 함께 신체 활동의 가치를 함께 교육한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육 교과서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전형적인 스포츠뿐만 아니라 티볼, 발야구, 플라잉 디스크, 패드민턴, 넷볼 등과 같은 뉴 스포츠와 댄스 스포츠, 그리고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클라이밍, 국궁, 기마놀이,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타기 등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며 이 모두 새로운 체육과 교육과정 덕분(?)이다. 여가 활동과 같은 영역은 비록 학교에서 환경이나 여건상 제시된 교육 내용을 100% 체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평생 스포츠로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수업에서 신체 활동 지식을 가르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 교육과정은 체육 교과서를 미래 사회의 변화에 알맞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3. 미래의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것이 2007년 7월 31일이었으니 이제 3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2009개정 교육과정(총론)이 다시 고시되었고, 여기에 발맞추어 2011년 12월을 목표로 다시 각론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2010년 7월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만이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은 아직 2007 개정에 따른 새 체육 교과서를 받아 보지 못한 상태인데 다시 각론 개정을 한다고 하니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기 전에 또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하는 매우 숨 가쁜 개발 일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4. 스포츠 클라이밍

1 스포츠 클라이밍은 어떠한 운동인가

(1) 스포츠 클라이밍의 역사

스포츠 클라이밍은 인공 암벽 위에서 손과 발을 사용하여 몸을 이동시키며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스포츠이다.

처음에는 산악 등반 훈련을 위한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독립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다. 1968년 영국의 리즈 대학에 인공 암벽이 처음 설치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고, 전국에 인공 암벽이 세워지면서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을 위한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스포츠 클라이밍의 특성 및 효과

특성

-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추어 운동 강도를 조절하여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 가까운 곳에 설치된 인공 암벽을 이용함으로써 지연 암벽까지 가는 번거로움과 시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인공 암벽은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내 · 외적 위험 요소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

효과

-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 기초 체력을 길러 준다.
- 복잡한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상 정체에 대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 어려움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극기심과 인내심이 길러진다.

206 V. 여가 활동

솔직히 말해서 교과서 집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2011 개정에 따른 체육 교과서를 다시 집필한다는 것은 국력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체육 교과의 경우 3~4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등을 모두 송두리째 바꾸어야 할 만큼 국내외 적으로 급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되도록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보충하여야 할 것이나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강조하여야 할 것 등을 보완하는 정도의 수시 개정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기본 생각을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자로서 미래의 교육과정에 바라는 기대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활동과 더불어 창의성을 강조하고 이를 계발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영국 사학자인 토인비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역사의 연구"(Study of History)에서 창의적인 행위가 인류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문명의 힘이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지식 창출과 통합적 전문성이 강조되는 21세기 사회에서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은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이며 생산적인 지적 능력이다. 창의성은 인성과도 깊이 관련된 심리 특성으로 최근에는 교육을 통하여 개발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다(박성익, 유경훈, 2010). 그렇다면 체육 교과에서 추구하는 창의성은 어떠한 특징을 지녀야 할까? 이에 대하여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 창의성에 대하여 찾아볼 수 있는데,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가운데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지닌 사람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위해서는 확산적 사고가 필요하다. 체육 수업에서 확산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체 활동과 과학적 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육상 크라우칭 스타트는 안정되지 않고 왜 불편한 자세인지?' 이를 무게 중심과 안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해답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 상황에서 주변 상황은 늘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한다. 예를 들면, 축구 수업에서도 1:1, 2:2, 3:3 … 11:11에 이르기까지 인적 구성 및 공간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된다. 수비를 함에 있어서도 공을 가진 공격수에 대한 수비와 공을 가지지 않은 공격수에 대한 수비가 다를 것이며, 현 상황에서 내가 직접 슛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여 슛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지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이 매우 빠른 시간에 필요하다. 체육 교과의 경쟁 및 도전 활동 등에서 학생들은 전술을 사용한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학생들에게 활발한 신체 활동과 더불어 더욱 창의적인 사고력을 강조하는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었으면 한다. 창의적 사고력 검사로 유명한 토렌스(1996)에 의하면 작문, 수학, 컴퓨터를 가르치듯이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창의적 기술과 능력을 가르칠 수 없다는 논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한다.

둘째, 신체 활동과 함께 좋은 인성을 강조한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세계 각국의 언론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안팎에서 살인, 자살, 폭행, 강간, 약물 복용, 왕따 등 비인륜적인 행동을 자주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은 현재 처하여 있는 사회의 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체육 수업을 통해서 사회성 및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심각한 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사회성 및 도덕성, 즉 인성의 부재로부터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인간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체육 활동에 대해 단지 학생들의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진 외국에서는 부모들이 자식의 인격 교육, 정서 교육을 위하여 체육 활동에 자녀들을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체육 활동 그 자체가 인격 교육, 정서 교육, 도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체육과에서 주목하여야 할 인성을 다양하지만, 미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길러 주어야 할 체육과에서의 인성은 협동심, 사회적 책임감, 스포츠맨십, 도덕심 등이 있다. 과거처럼 형제, 자매가 많지 않고, 귀하게 자라는 외동아이들이 많은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협동심은 매우 중요한 인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협동심은 사회성 발달, 동료에 대한 태도,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왔다. 체육 교과에서는 직소우(Jigsaw) 등과 같은 협동 학습을 통하여 모든 팀

원의 성공 기회, 상호 작용의 평가 등과 같은 교수 전략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협동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

셋째, 사람 간의 인간관계 기술(interpersonal skill)을 강조한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활동이 구현하는 여러 가치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미래의 교육과정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인 관계 기술도 체육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는 '체육과 건강' 교육과정에서 대인 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인간관계 및 건강과 활동적 삶을 위하여 필요한 대인 관계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이는 반드시 필요하고 학습하여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인간관계 기술에서 학생들은 집단 내의 신체 활동 상황에서 또는 건강을 증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인 관계 기술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 변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필요한 대화 능력, 학교 캠핑을 위해 메뉴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짤 때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동료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단호히 대처하는 능력 등과 같은 인간관계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단순하게 게임에서 선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장, 트레이너, 코치, 매니저, 심판, 진행자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맡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도력, 대화, 협력과 중재 능력 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팀의 리더는 지도력, 대화, 중재 능력 등을 사용하여 공정한 플레이를 반영한 전략을 짜고, 선수 개개인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보장해 줄 수 있다. 특히, 게임 활동에서 분쟁이 있는 상황이 연출될 때 학생들은 분쟁을 해결하고, 통제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인간관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나침반이자 지도의 역할을 한다. 앞서 나의 경험에서 밝혔듯이 국가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서이다. 체육 교과서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앞으로 많은 숙의의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연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a).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검정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b). 체육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유정애(2007).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서울:대한미디어.
- 김정휘, 이정규, 이민희 공역(2004). 창의성과 영재성. 서울: 학지사.
- 박성익, 유경훈(2010). 초등학생의 성취 목표 동기 유형과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분석.
- Torrance, E. P.(1996).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Norms-technical manual. Princeton, NJ: Personnel.

1교사 1교과 교실제 운영 사례



노희방
한강중학교 교감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는 학급별로 학생을 편성하여 학급 교실을 배정하고 교과 담임이 학급별 시간표에 따라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과학이나, 미술, 음악 등의 일부 교과에서는 교과 특성에 맞는 특별 교실을 꾸며놓고 학생들이 이들 교실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대규모의 학교에서는 이들 교과 담임이 1인 이상이어서 모든 수업을 특별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교과 특성에 맞는 교실을 조성하여 교사가 교과 교실에 상주하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준별 또는 맞춤형 수업을 하게 된다. 전자의 형태는 학급 교실제, 후자의 형태는 교과 교실제라고 할 수 있다.

교과 교실제는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기(2000~2004)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수의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9년 5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교과 교실제 선진형 과목 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교과 교실제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강중학교는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시범 학교로 지정되어 2008학년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부터는 전 학년,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진형인 1교사 1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한강중학교에서 추진하였던 교과 교실제 운영을 대비한 학교 환경 정비 및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과 교실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Ⅰ. 교과 교실제 운영 대비 제반 학교 환경 정비

다음에서는 교과 교실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학교 환경 정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 교실 재배치

전 학년에 대한 교과 교실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실, 홈베이스 등과 같은 학습 지원실과 교과 교실을 다음과 같이 재배치하였다. 이들 교실을 배치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된 사항은 학생들의 이동 거리 및 접근성이었다.

먼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의 하나인 도서실을 본관 1층 중앙에 배치하여 전교생이 가장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사물함이 비치되고 탈의실을 겸용하는 홈베이스는 2층부터 5층까지 각층의 중앙에

교과 교실제는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기(2000~2004)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수의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9년 5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교과 교실제 선진형 과목 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교과 교실제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배치하여 학생들의 이용과 교사들의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였다. 방과 후나 점심시간에 활용하는 공부방은 학생들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학생부 옆에 설치하였다.

교과 교실은 동일 교과를 나란히 블록으로 배치하여 동교과 내의 협의와 정보 교환이 용이하게 하였다. 이때 수업 시수가 많은 국어, 수학 등의 교실은 낮은 층에 수업 시수가 적어 학생들이 빈번히 찾지 않는 한문, 미술 등의 교과 교실은 5층에 배치하였다.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급 교실제에 비하여 무엇보다도 교실의 수가 충분하여야 한다.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하여 총 18개 학급인 본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과 교실, 학습 지원실, 관리실 등을 포함하여 56개의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

교실 현황[A](2010)

교과 교실[B](34실)		학습 지원실(11실)		관리실(11실)	
국어과	5	도서실	1	교장실	1
도덕과	1	컴퓨터실	1	교무실	1
사회과	3	멀티미디어실	1	행정실	1
수학과	5	학생 공부방	1	교육 연구실	2
과학과	5	홈베이스	4	학생 복지부실	1
기술 가정과	2	골프 연습실	1	과학 환경부실	1
체육과	2	인쇄실	1	보건실	1
음악과	1	방송실	1	전문 상담실	1
미술과	1			회의실	1
영어과	6			여교사 연수실	1
한문	1				
특수 학급	1				
창의적 재량 활동	1				

A: 교과 교실, 학습 지원실, 관리실의 크기는 각각 다양하다.
B: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 교과 교실 운영 방침

교과 담당 교사가 교실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식 시간에도 교과 교실에 상주하여 교과 지도와 함께 생활 지도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생은 등교 후 담임 교실에 모여 아침 조회를 하고, 매시간 교과 교실로 찾아가 수업을 받으며,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담임 교실로 가서 종례를 받는다. 점심시간 등의 휴식 시간이나 자치 활동 및 적응 활동 시간 등은 담임 교실을 이용한다.

정기 고사(중간, 기말, 영어 듣기 평가 등)는 담임 교실에서 실시하며, 교실 내 책상 배열이 고사 실시에 부적합한 경우는 고사 실시에 적합한 교실로 배치하였다. 각 교실 출입문 벽면에 부착하는 팻말에 교과명, 담당 교사, 담임 학급을 표시하고, 각 층과 복도에 전 학년 수업 시간표와 교실 배치도를 부착하여 이동에 따른 혼란을 줄이도록 하였다.

3. 교실 환경 구성

교사가 교과 교실에 상주하면서 교재 연구 및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각 교실에 교사 연구용 책상과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과 특성에 맞는 교수 학습 자료, 교과 관련 도서, 학생 포트폴리오를 비치할 수 있는 자료장을 구비하였다. 한편, 교실마다 빔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전자 칠판 또는 전자 교탁을 구비하여 ICT 활용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4. 학생 생활 공간 확보 및 학생 생활 지도 관리 체제 구축

학급 교실의 개념이 사라진 학교의 공간에서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이동을 해야 하고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확보는 필수 사항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홈베이스와 공부방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복도와 홈베이스에 휴식용 의자를 비치하였다. 한편 교정 곳곳에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였고, 식당 옆에 정자를 설치하여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학생 생활 지도 관리 체계 구축

학생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 형성 및 교과 교실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활 지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기본 생활 규정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학기 초부터 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각층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숙지시켜 교실 밖에서 배회하는 학생이 없게 하며, 교사는 수업 시작 종과 함께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였다.

배움터 지킴이를 활용하여 취약 시간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였다. 또한 생활 지도상에 문제가 있는 학생,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불손한 학생이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 중 지도하기가 힘든 학생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전문 상담 교사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생활 자세를 바꾸도록 지도하였다.

6.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환경 구성

교과 교실제에서는 교사가 각 교실에 상주하기 때문에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체제 정비도 필요하다. 교사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 개인의 수준과 관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교과 교실제에서는 매 수업마다 학생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이나 선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간 업무 처리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교내 교사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인터폰을 설치하여 업무 연락 체계를 조직화하였다. 또한 전출입 처리, 성적 처리, 각종 규정 등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무 업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유함으로써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 개인의 수준과 관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교과 교실제에서는 매 수업마다 학생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이나 선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교과 교실제와 연계하여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과 블록 타임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 수준별 이동 수업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마다 이동하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반 학생들의 거부감이 적어 수준별 이동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본교의 수준별 이동 수업은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교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준별 반은 2학급 3수준 또는 3학급 4수준으로 편성되며, 교과에 따라 연간 2번 또는 4번씩 반을 재편성한다. 반편성은 기말 고사와 중간고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나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반 편성 시기는 4회의 경우 3월, 5월, 8월, 10월이며, 2회의 경우는 3월, 8월이다. 수준별 교수 학습 자료는 담당 교사가 교과서와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개발한다.

2. 블록 타임제 운영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잦은 교실 간 이동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국어, 영어, 가정, 미술 교과에서 2시간을 연달아 수업하는 블록 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블록 타임제는 학생들의 이동 횟수와 책가방 무게를 줄이는 한편, 수업 시간의 연속으로 보충 심화 학습 및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교실 수업을 변화 시킬 수 있다.

Ⅲ. 교과 교실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고려 사항

교과 교실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교사 각자가 개인 교실에 상주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정보나 의사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자주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이동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45분 연속 수업인 블록 타임제를 실시하거나 장기적으로 1차시 수업 시간을 60~70분으로 늘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일반 행정 업무를 줄이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행정 보조 인력 인건비를 시범 학교 운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조해 주어야 한다.

넷째, 각 교실에서 교사가 상주함으로서 증액되는 냉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과 교실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는 교과 교실 환경을 활용하여 부단히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연



영어 교과 교실의 게시물과 학습 자료장



홈베이스의 사물함과 휴식용 의자



학생 공부방



교정의 학생들 휴식 공간

1) 과학이나 미술, 음악 등의 일부 교과에서는 교과 특성에 맞는 특별 교실을 꾸며 놓고 학생들이 이들 교실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대규모의 학교에서는 이들 교과 담임이 1인 이상이어서 모든 수업을 특별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2) 선진형 과목 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교과 교실제.

3) 현재의 중경고등학교 자리에서 개교한 한강중학교가 현재의 서빙고동 교사로 이전한 1990년도에는 26 학급이었으나, 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급 수가 줄게 되어 교과 교실제 이전에는 유휴 교실이 많았다.

선진형(A형) 교과 교실제를 통해 학교 변화의 실마리를 풀다



우영옥
경기 오남중학교 교장

교과 교실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 모두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전 교과목의 교실을 마련해 놓고 교사들이 각자 자기 교과 교실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선진형(A형) 교과 교실제인데, 교사가 교실에서 준비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하나하나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면서 전 학생의 참여와 성공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업무 중심의 학교 운영 방식에서 교과 중심의 학교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며, 이는 권위주의적인 교장 중심의 학교 경영 체제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어 결국 교실 혁명이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예견해 볼 때 분명 학교의 기능은 달라져야 하고, 학력이라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어 교과 교실제를 통하여 학교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대부분 수긍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교과 교실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과 교실제의 목적과 운영 방법, 그 효과성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교원 정책이나 입시 문제 등 전반적인 교육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시설 환경만 바꾸었다고 해서 결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력이라는 것이 문제 풀이식 시험 성적이라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교사들이 교과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고 주입식 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교실 풍경과 다름없게 될 것이다. 수업에 변화가 없다면 학생들의 불편한 생활에 대한 불만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교과 교실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본교의 선진형 교과 교실제 운영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오남중학교 선진형 교과 교실제 운영의 내용

본교는 작년 8월 선진형(A형) 교과 교실제 운영 시범 학교로 지정되어 9월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 교실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 모두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전 교과목의 교실을 마련해 놓고 교사들이 각자 자기 교과 교실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선진형(A형) 교과 교실제인데, 교사가 교실에서 준비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하나하나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면서 전 학생의 참여와 성공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금년 5월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2개월간은 공용 교실을 늘려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올 3월부터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혁신 학교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전 학년 교과 교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본교의 건물은 일자형의 5층으로 되어 있는 공장형 구조이며, 2006년도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중학교가 본교밖에 없었으므로 44개 학급까지 학생 수가 늘어났다가 2007년도에 인근의 2개 학교가 신설되면서 23개 학급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년간 보통 교실로 쓸 수밖에 없었던 특별 교실-과학실 2실, 가사실, 기술실, 음악실, 미술실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고, 도서실과 식당, 영어 전용 교실과 수학 전용 교실을 만들었으며 2009년도 5월에 본관 뒤쪽에 체육관을 준공한 상태에서 교과 교실제를 접하게 되었다.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층은 관리실과 식당, 2층은 교무실과 시청각실, 그리고 과학 교과군, 3층은 도서실을 중심으로 영어와 국어 교과군, 4층은 수학과 사회, 음악 교과군, 5층은 교양 교과인 기술 가정, 한문, 미술, 제2외국어(일본어와 중국어) 교과군으로 배치하여 특색이 나타나도록 리모델링을 하였고, 해당 교과에서 원하는 선진형 기자재와 교구 및 비품을 마련하여 넣어 주었으며 환경 게시물 등은 각 교과에서 학습 결과물 등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교과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1교사가 1교실을 담당하고 있으나, 학급 수가 늘어날 예정(현재 23개 학급에서 30개 학급으로 증가됨.)이므로 교사 수가 늘어나는 대로 교사들은 교과 연구실에서 상주할 것이고 교과군에 있는 교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교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며, 각 교과 연구실은 교과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더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2+1 체제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고, 집중 이수제와 블록 타임제를 적용하여 학생 이동 횟수를 줄이며, 학급 교실과 홈베이스를 주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복도 중간 중간에 학생들이 쉴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3층에 있는 도서실을 4실로 확장하여 2실 정도의 넓이는 온돌 마루와 북 카페 분위기로 휴게실과 같은 공간으로 꾸몄는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며, 1실은 자기 주도 학습실, 그리고 1실은 독서 토론실로 꾸몄다.

교사들의 업무 분장을 교과 중심으로 하여 행정적인 업무는 교무지원센터에서 교감, 교육과정 부장, 학력 향상 부장, 학생 복지 부장이 행정 요원 3명과 함께 주로 처리하고, 교과군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은 주로 교과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과군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활 지도도 함께 담당하는데,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동아리 활동, 교과 관련 진로 지도, 교과 관련 학교 행사, 방과 후에는 교과 관련 학생 학습 동아리 활동 등을 담당한다.

올해 교과 교실제를 통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교사 동아리 활동, 학부모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생 학습 동아리 활동이다. 교사들은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 연구회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학부모 지원단에서 학부모 동아리 활동으로 평생 학습과 학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매일 행해지고 있는 것이 방과 후 학생 학습 동아리 활동인데, 교과 학습과 특기 적성 학습으로 나누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활동 목표이다.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내용과 방법을 찾아 실천한 뒤에 스스로 평가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목표를 다시 설정할 줄 아는 학습 습관을 길러 주자는 것이다. 아직 중학생이지만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그 방향만이라도 교과 교실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으며, 먼저 진로 탐색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과군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7명 내외가 동아리를 결성한 뒤에 같은 교과 내에 관련성이 높은 3개 동아리를 한 교사가 맡아 지도하고 있다. 전교생 129개의 동아리가 결성되어 교과별로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현재는 교육과정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과 후 활동으로 하고 있다. 무학년제라든가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의 단위 수를 개인별로 늘려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인별 시간표를 작성할 기회를 주고 싶지만 아직은 요원한 상태이다.

Ⅱ. 교과 교실제의 성공을 위해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

1.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선택의 기회 확대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를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찾아가 학습하는 체제인 교과 교실제에서는 교육과정이나 시간표를 학교에서 정해 주지 말고, 학생 스스로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므로 무학년제까지 도입하여 학생마다 다른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중학교는 아직 교육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좁다. 선택 교과 2과목 정도에 그치고, 수준별 수업을 하는 정도인데 중학교 과정은 의무 교육이므로 기본 교과 내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책무성을 가지고 학습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는가? 어떤 이유로든 학습 결손이 누적되면서 학력이 저조한 학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므로 필수 교과 내용을 이수하도록 하는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준별 운영에서 2+1 체제로 학생 수를 줄여 수업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 결손이 없도록 단원에 따라, 활동에 따라 집단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2. 교과서 재구성 문제

수업 개선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교과서이다. 아니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를 다루는 교사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교과서는 수업의 교재이고,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론적인 내용은 맞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과서 종류가 20~30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있다. 교사들마다 자기 멋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지만, 그 단원이나 시간에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에 초점을 두고 내용과 방법은 수업의 상황에 맞게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습 능력에 따라 모든 학생의 참여와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과서 재구성이 필요한데, 교사들이 시간

교과 교실제는 학습의 유비쿼터스이다. 다양한 교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준비된 수업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에 효과적이라는 것, 학생들이 찾아가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자율적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 나눔과 배려를 아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적합하다는 것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교과서 내용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지 말고 같은 학습 내용이더라도 수준별로 다양하게 만들어 제공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교사들이 참조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나 수업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교재에 대한 안내를 더 폭넓게 할 수는 없는지……. 전문 서적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수업을 통하여 얻을 수도 있지만, 교육과정 해설서라든가 교사용 지침서를 더 자세히 만들어 제공해 주고 교과서는 다양한 재료 중의 하나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근본적인 열쇠는 평가 방법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실제적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수업,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 개인별 맞춤형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업 설계이며 그에 맞도록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3. 생활 지도의 문제

학급 교실에 학생들이 상주할 때에는 학급 담임의 역할이 컸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폭이 좁고 규제로 일관된 학교생활이었기 때문에 학급 중심의 생활 지도로 가능했다면, 교과 교실로 학생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세세한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물론 학교 전체 교실마다 교사들이 상주하므로 큰 사고는 훨씬 줄어든 반면에 공동체 의식이 너무 낮아 성숙한 학교생활 문화를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일이 생겼다. 학교 전체가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공간으로 열리게 되면서 학생 지도 영역도 넓어졌고, 홈베이스, 사물함, 신발장, 탈의실, 화장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율적인 공간에서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생활 의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부모 지원단에서 매일 4명씩 봉사를 하며 지도하고 있고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행정 요원이 지도를 하지만 그 역량에 한계가 있다. 학생 복지를 맡은 담당 부장이나 인근에 있는 교과 담당 교사도 지도를 하지만, 교과 교실에서 수업에 전념하다 보면 문제에 대한 세세한 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적기에 지도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 교사가 필요하고 생활 지도를 담당할 지원 인원도 더 필요하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 성교육, 금연 교육, 범죄 예방 교육, 예절 교육, 심성 수련이나 다양한 단체 활동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실시되어야 하고, 학생 개개인에 따라 다른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교사들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의 필요

본교의 교사들은 교과 중심 부서에서 교사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문학부(국어, 한문), 외국어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수리 탐구부(수학, 컴퓨터), 과학 기술부(과학, 기술 가정), 예체능부(예술, 체육, 보건, 영양)에서 수업에 대한 논의를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올해 공개 수업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동료 장학이나 협력하여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등 더욱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과학 교사 동아리에서는 1주에 1회는 지역의 과학 교과 교육 연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1회는 본교의 교사들끼리 다음에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고 실험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수업을 준비한다. 기술 가정 교과도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교육 내용을 전환하여 다양한 실습을 시도하고 있다. 벌써 한 학기에 5~8차례 실습을 했으니, 거의 모든 시간이 실습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교내 자율 연수도 전 교직원이 함께하는 방식은 줄이고 교과별 교사 동아리 활동에서 수석 교사를 초빙하여 프로젝트 학습이나 교과 통합 수업과 같은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한다. 교과별 '오남 킹(king)'과 같은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교과에 매력을 느끼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학력 향상 부장이 전체 교사의 시험 문제를 검토했지만 이제는 교과 부장이 검토하여 결재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아직은 초보 수준에 지나지 않고 의욕은 있으나 관행처럼 굳어 있는 옛날 방식으로 사고가 다시 돌아가는 등 갈팡질팡하는 교사들도 있어,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왜 교과 교실제의 성공이 교사들에게 달려 있는지, 왜 이 교과 교실제를 정착시켜야 하는지, 앞으로 학교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모든 학생이 성공하는 교육 방식은 무엇인지, 이 시대의 교육 가치와 방향을 충분히 알고 농익은 숙성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먼저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개개별 능력의 차이를 침대에 키를 맞추는 식으로 획일화시켰던 과거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각기 타고난 소질과 적성이 다르므로 개개인에게 맞는 각기 다른 최적의 기회를 제공해서 모든 학생이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 여태까지는 학생들이 늘 교우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도록 훈련을 받아왔다. 이제는 유아독존식의 나 홀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이루고 같이 빛나는 일을 할 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나가면 갑자기 그런 덕목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이율배반이다. 학습 방식이나 학교생활을 공동체 활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과 교실제는 학습의 유비쿼터스이다. 다양한 교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준비된 수업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에 효과적이라는 것, 학생들이 찾아가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자율적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 나눔과 배려를 아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적합하다는 것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교과 교실제로 전환하려면 여유 교실이 있어야겠지만 학교의 의지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서 일부 교과만이라도 먼저 실시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본다. 인프라 면에서 60%면 충분하다. 장애나 애로보다 높은 60%의 전망과 확신이 서면 나머지는 추진하는 사람의 열의와 실천력에 달려 있다. "……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가 아니라, "……라서 한다."라는 소명 의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창조는 아이디어와 열정의 산물이다.

교과 교실제 실태와 개선 방안 (B-2 type 교과 교실)



백대준
동대전고등학교 국제문화부장

2010년 우리나라 교육계의 커다란 변화 중 하나는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급 교실로 이동하는 기존의 수업 방식과는 달리,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에서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듣는 형태인 교과 교실제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본교에서는 B-2 type의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그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리고 교과서 활용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Ⅰ. 운영 현황

1. 시설

시설 면에서 살펴보자면, 본교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 말에 걸쳐 유휴 교실 활용과 교실의 재배치를 통하여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용 교실 4실, 어학실 1실, 컴퓨터 영어 학습실 1실, 영어 공용실 1실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모든 시설을 영어 과목 이동 수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필요한 모든 과에서 방과 후 활동(보충 수업), 동아리 활동, 그리고 야간반 지도 등으로 100% 활용하고 있어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2010학년도 교과 교실제 시설을 이용한 정규 수준별 이동 수업 편성 과목 및 단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과목	전체 단위	해당 단위	한 군의 학급 수	수준	총 학급 수	비고(형태)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영어	8단위	8단위	3학급	4수준(상, 중상, 중하, 하)	1학년 12학급	3+1
선택 중심 교과	영어 I	8단위	8단위	3학급	4수준(상, 중상, 중하, 하)	2학년 12학급	3+1
교과 재량 활동	심화 영어	2단위	2단위	1학급	2수준(상, 하)	1학년 12학급	1+1

2. 실용 영어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

(1) TEE 수업을 위한 자료집 발간(교과서 중심)

㈎ 1차시당 학습 활동 유인물 1건 작성

㈏ 4수준별 학생 능력을 감안하여 독창적이고 실제 수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재구성
㈐ 각 차시 유인물 4종은 교사 간 상호 자료 교환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자료로 제공

교재 개발 활동	교재의 내용
영어 교과서 자료집 발간	4수준(상,중상,중하,하) 각 수준별 150쪽 내외
영어 Ⅰ 교과서 자료집 발간	4수준(상,중상,중하,하) 각 수준별 150쪽 내외

⑵ 회화 수업을 위한 자료집 발간(2학기 예정)
㈎ 1학년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1학기용 17주 17차시의 자료집 발간
㈏ 말하기 활동 위주의 activity book의 성격
㈐ '컴퓨터 보조 영어 개별화 학습'과 병행하여 원어민과 공통의 주제를 정한 뒤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 구성

교재 개발 활동	교재의 내용
심화 영어 자료집 발간	17차시*2수준 각 수준별 30쪽 내외

3. 영어 교과 교실 수업 및 운영 모델 개발 현황

⑴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한 교과 교실 구축 및 운영 중
㈎ 1, 2학년 영어 교과의 모든 수업 시수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은 교과 교실 4실에서 운영 (상: Purple실, 중상: Blue실, 중하: Green실, 하: Orange실)
㈏ 수준별 특성을 살린 교실 환경 구성 및 자료의 제작으로 실질적인 수준별 이동 수업의 효과 창출
㈐ 수준별 교재 제작 및 평가의 실시
㈑ 운영 모델 및 교수 학습 내용
① 상반: 교과서의 내용 50% + 교과서 관련 자료 50%
② 중상반: 교과서의 내용 70% + 교과서 관련 자료 30%
③ 중하반: 교과서의 내용 100%
④ 하반: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 100%

⑵ 영어 도서실 신설 및 활용(예산 확보 문제로 2학기 시행 예정)
㈎ 목적: 맞춤식 독서 지도를 위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읽기 교육 실시
㈏ 운영 계획
① 영어 원서 확보 및 프로그램 도입: 9월
② 학생별 영어 원서 읽기를 위한 진단 평가 실시: 10월
③ 학생별 맞춤 도서 목록 출력 및 연간 독서 계획 수립: 10월
④ 2주에 1회 영어 도서실을 활용한 읽기 교육 실시: 11월~ 12월
⑤ 학생별 영어 독서 포트폴리오 작성 완료 및 평가: 1월

본교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 말에 걸쳐
유휴 교실 활용과 교실의 재배치를 통하여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용
교실 4실, 어학실 1실, 컴퓨터 영어 학습실 1실, 영어 공용실 1실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모든 시설을 영어 과목 이동 수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필요한 모든 과에서 방과 후 활동(보충 수업), 동아리 활동,
그리고 야간반 지도 등으로 100% 활용하고 있어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 교육적 활용

① 담당 학급별 월 2회 도서실 활용 수업

② 다양한 수준의 원서 확보 및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독서 지도를 통한 영어 읽기 능력 신장

(3) 어학실 활용 현황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개별화된 학습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어 회화 능력 신장을 위하여 어학실을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필요시 학년에 관계없이 수시로 활용(주로 말하기 및 쓰기 수업을 위해)

㈏ 3학년 이과 6반 주 1회 어학실을 통한 말하기 듣기 능력 신장

㈐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도입

(4) 컴퓨터 보조 개별화 학습 현황(컴퓨터 영어 학습실 사용)

㈎ 목적: 회화 교육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

㈏ 실행

① 1학년 2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40명 1개 학급을 상, 하로 나누어 진행)

② 학생들의 개별적인 발음 교정 및 억양(intonation), 강세(accent) 등의 기본적인 발화 교육

③ 학생들의 학습 진도 및 학습 결과물의 체계적인 관리: 개인별 포트폴리오 작성

4. 말하기(2학기 예정), 쓰기(2학기 예정) 및 듣기 평가 방법

(1) 말하기 영역: 수행 평가에 10% 내외로 반영하고 평가 방법은 어학실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개별 학생별로 평가를 함. 구체적인 방법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정하도록 함.

(2) 쓰기 영역: 수행 평가에 10% 내외로 반영하고 평가 방법은 어학실의 쓰기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개별 학생별로 평가를 함. 구체적인 방법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정하도록 함.

(3) 듣기 영역: 매 학기 EBS 주관 15시 시 도 영어 듣기 시험 평가로 대체하고, 수행 평가에 10% 내외로 반영함. 구체적인 방법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정하도록 함.

Ⅱ.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리고 장점들

현재까지 드러났거나 잠재하고 있는 학생, 교사, 그리고 시설 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수의 부족으로 아직 전 과목에 대한 교과 교실제가 실시되고 있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1교사 1실이 아닌 2교사 1실, 즉 전 과목 교과 교실제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서 1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교사들 간의 자료 정리 공간 확보의 문제와 시설 사용 방법의 불일치, 그리고 시설 파손 시 신속한 상호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쉬는 시간에 전교생이 움직이므로 복도의 다소간의 혼란과 쉬는 시간(10분) 동안 이동이 어렵다. 특히, 전 수업이 좀 늦게 끝날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추후에 교과 교실제 확대를 감안하여 동선을 섬세하게 고려한 학급 배치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과목마다 옆자리 동료가 달라짐에 따른 학생 간 유대 관계 약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소지품 분실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고가품 소지를 자제하도록 한다.

넷째, 예전에 비해 학생 관리, 생활 지도, 학급 관리가 더 어려우며, 시간표 변동 시 이동 학생의 혼란 등이 제기된다.

다섯째, 수준별 이동 수업에 따른 낮은 수준 반 학생의 열등감 문제와 자기 학급에 대한 소속감 감소의 문제가 있다.

여섯째, 언제나 그래왔듯이 수업은 수준별로 하고 사실상 평가는, 특히 수능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영어 능력 인증 평가를 2급, 3급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살펴볼 문제이다.

일곱째, 교과 교실제 운영에 필요한 교사 인력을 시간 강사나,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교원으로 충원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교에서는 현재 시간 강사나 기간제 선생님들이 매우 열심히 해 주어서 무척이나 다행스럽지만 모든 학교에서 그러기는 어려울 듯하다.

여덟째, 교실 파손, 교과 교실 시설 유지 보수의 문제가 있다. 특히, 교과 교실에 있는 고가의 첨단 장비들, 예를 들면, 크레아보드, PDP 텔레비전, 프로젝터, 컴퓨터, 북스캐너, 분배기 등의 시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작동이 불완전하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사실 상기한 시설들의 고장 및 오작동으로 업체에 연락하고 수리한 횟수가 벌써 수십 차례에 이른다. 업체에서는 또한 프로젝터의 램프를 시간마다 꺼야 오래 쓸 수 있다고 말하지만 1개실을 2인 이상이 번갈아 사용하는 형편에서 사실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 시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장비와 시설을 한 업체에 맡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약, 발주하다 보니, A/S에 있어 유기적인 흐름이 확보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며, 업체끼리 서로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성실한 업체를 잘 선별하여 전반적인 시설을 모두 다 일괄하여 설치하게 한다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홉째, 활용도를 높이자니 시설 파손이 심해지고, 시설을 보호하자니 활용도는 떨어지게 되는 활용도와 시설 유지 간의 반비례 관계이다. 본교에서는 사실 B-2 type의 교과 교실제를 시행함에 있어 여러 개의 유

**교과 교실제를 시행하여 드러난 좋은 점들도 많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교실에 가면 모든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노트북 등 학습 교구를 옮기고 설치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수업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학업 성과만을 놓고 볼 때,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휴 교실을 영어과(만)의 교과 교실로 개조하여 사용하다 보니, 타 과목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교과 교실을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 부진아 지도를 위하여 모두 개방하다 보니 그 활용도는 만족스러우나, CCTV 설치를 하기는 하였지만 고가 시설의 도난 우려의 문제가 있고, 열쇠 관리도 만만치 않다. 또, 헤드셋이 벌써 여러 개 망가진 상태이며 크레아보드에 흠집을 내놓기도 한다. 그래서 각 실의 교사들이 학생들이 완전히 자리를 떠난 뒤에 문단속을 하거나, 학생들의 좌석을 지정해 주는 방식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기자재 파손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첨단 기자재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교과 교실의 뒤편에는 백묵을 사용할 수 있는 칠판을 하나씩 설치해 두었다. 책상만 뒤로 돌리면 전통적인 교실에서와 같은 수업도 가능하다.

교과 교실제를 시행하여 드러난 좋은 점들도 많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교실에 가면 모든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노트북 등 학습 교구를 옮기고 설치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수업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학업 성과만을 놓고 볼 때,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학생들은 새로운 시설에서 산뜻한 기분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으며, 교실에 마련된 학습 자료들을 보면서 잠재적으로 영어 과목에 대하여 깨닫는 바가 있다.

Ⅲ. 교과서 활용 실태

교과 교실제 시행에 따라 교과서 활용도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크레아보드, PDP 텔레비전 등 대형 화면을 통하여 교과서 본문과 교과서에 첨부된 CD-ROM을 투사하여 직접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화면이 커져서 현실적인 활용이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 교과서를 재구성한 교수 학습 자료의 활용도도 기존의 일반 교실에서보다 더욱 높아졌다. 연

2010학년도 C형 교과 교실제 운영



이승훈
청주 성화중학교 교사

Ⅰ. 주제

수준별 수업 성공을 위한 고민
– 영어,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

Ⅱ. 추진 개요

최근의 교육과정 연구는 인간의 경험이 일어나고 매개되는 학교 현장에 대한 기술적 해석적 비판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학교 문화, 경험, 상호 작용, 실행, 의미 체계, 학습 풍토, 교육과정 결정자로서의 교사, 실행된 교육과정, 교실 대화, 권력과 이데올로기 등이 교육과정의 중요한 탐구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1]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 훌륭한 수업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교육 내용은 학생의 수준 차이와 다양한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수준별 학습 조건이 필요하다.

본교는 지난 2008년에 개교한 학교로서, 인성과 학력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지도하고 있으며, 매주 실시되는 과제 학습과 100회 절하기를 추진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 수업 개선과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 활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특히, 본교는 BTL(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학교로 외부 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내부의 시설과 학습 기자재가 부족한 편이며,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실 리모델링이 필요해 교과 교실제를 신청하게 되었고, 2010년 2월에 리모델링을 완성하였으며, 3월부터는 실제로 교과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차를 고려한 내실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해 학습 부진 학생들로 하여금 끝까지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의 의무이다. 학생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실제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 교실제를 시행하는 과정을 간략히 보여 줄 것이며, 각 교과별로 교과 교실을 운영해 본 결과를 제시하고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학교 교육 내용은 학생의 수준 차이와
다양한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수준별 학습 조건이 필요하다.
개인차를 고려한 내실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해 학습 부진 학생들로 하여금
끝까지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의 의무이다.
학생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실제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추진 현황

1. 현황

번호	일시	내용	비고
1	2009. 06. 24.	부장 회의, 교과 회의, 전체 회의	
2	2009. 07. 0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가결	
3	2009. 08. 03.	C형 교과 교실제 학교로 선정됨.	
4	2009. 10. 13.	C형 교과 교실제 충북 선도 학교로 선정됨.	
5	2009. 11. 17.	자율 학교 지정(5년)	
6	2010. 02. 01.	리모델링 완성	
7	2010. 02. 28.	기자재 구입 및 설치 완료	
8	2010. 03. 02.	교과 교실에서 수업 실시	
9	2010. 03. 16.	모니터링단 선정 및 활동 시작	
10	2010. 05. 25.	수준별 교재 발간 및 행정 보조 요원 채용	
11	2010. 07. 21.	충북 교과 교실 우수 사례 발표 대회 참가	

2. 교과 교실 구축

○영어 5실: 1실(1칸), 2실(0.75칸), 3실(0.75칸), 4실(0.5칸), 5실(1.5칸)
○수학 4실: 1실(1칸), 2실(0.5칸), 3실(0.5칸), 4실(0.5칸)
○과학 2실: 1실(1.5칸), 2실(1.5칸)
○층별 베란다 활용: 2층(과학 준비실), 3층(여교사 휴게실), 4층(남자 휴게실)
○각 층 연결 통로: 학년별 휴게 공간 마련
○종합 휴게실: 전용 안내판 설치, 식당 옆 빈 공간 이용
○간이 휴게실: 1층 현관 앞

1. 교과 교실 환경 설비

과목	학습 장면	환경 설비	참고
영어	Watching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일상생활과 연결된 상황 보기(1, 5실)
	Listening	무선 마이크 및 텔레비전	원어민의 발음 체험(5실)
	Speaking	가상 스튜디오 학습 시스템	생활 회화 체험(3실)
	Reading	작은 영어 도서실	다양한 원서 읽기(2실)
수학	강의 내용 보고 쓰기	영상 장비(태블릿 모니터, 텔레비전)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 장치 설치
	각종 수학 관련 전시물을 이용한 수업	테마를 스크린(수학 관련), 수학 포스터(π, 정다면체)	학생의 시야를 고려한 배치: 창문, 게시판
	모둠별 협동 학습하기	이론 수업 및 모둠별 자료 제작을 모두 실시할 수 있는 공동 공간 확보(책걸상 이동), 대수막대, 조노둠 시스템 구비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구 확보
	개인별 과제 수행하기	개인별 각종 자료를 만들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수업 자료 보관장, 보관함	
	도표, 그림, 읽기 자료를 활용한 수업	각종 서적 보관 및 정리-책장, 서적 비치(112권)	
과학	개인 과제 수행 결과 발표	음향 시설, 빔프로젝트, 인터넷, 태블릿 모니터, 영상 현미경, 실물 화상기	컴퓨터 관련 시설 설치
	동영상 자료 활용 수업	영상 자료 등 각종 자료 보관 및 정리	책장 및 교사용 실험대 수납장 이용
	모둠별 실험	2인용 이동식 실험대	2인용 실험대를 연결하여 적절한 형태의 모둠을 만듦

2. 교과 교실에서의 수준별 수업 진행

(1) 수학 교실에서의 수준별 수업

㈎ 단계형 수준별 집단 편성은 전 학년 정기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2개 학급을 기본 단위 3개 집단(심화, 보통, 보충)으로 편성한 뒤, 교실 규모를 고려하여 심화, 보충반은 교과 교실에서 보통반은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 수준별 이동 수업 반 편성 시 인원은 심화반 25명 내외, 보통반 25명 내외, 기본반 15명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 학습 자료는 각 수준에 따른 수준별 학습지를 활용한다.

㈑ 수준별 교수 학습 모형

구분	인원	학습 모형	담당
심화반	25명 내외	개별화 학습 및 협동 학습	수준별 강사
보통반	25명 내외	개별화 학습 위주	본교 교사
보충반	15명 내외	개별화 학습 및 협동 수업	본교 교사

교과 교실에서의 수준별 이동 수업 결과, 학생들의 참여도와 자신감이 증가하고 첨단 기자재를 도입한 교실 환경의 변화로 수업 집중도도 높아졌다. 교사는 학생 수가 줄어 비교적 개별 지도가 가능해졌고,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하여 수업 진행이 보다 원활해졌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 수업에 따른 하반 학생의 열등감 문제가 대두되었고 확실한 실력별 분반이 어려우며 학기별 실력 향상에 따른 분기별 반 편성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운영의 실제

구분	교수 학습 방법
보충반	• 수학적 기호와 용어를 쉽게 익힐 수 있게 여러 번 설명하고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반복 연습한다. •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고 발표를 하면 보너스 점수를 주어 수행 평가 태도 점수에 반영한다. • 난이도를 조정한 학습 내용을 제공하여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교과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 짝과 점검 협동 학습을 하게 하고, 반별 대항전을 통해 참여도를 증진시킨다. • 개인별 개인 영역을 파악하여 개별 추수 지도한다.
보통반	• 기본 교과 개념을 설명하고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 발전 문제를 다루며 심화 문제를 실어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도전 문제로 풀 수 있도록 한다. • 난이도를 조정한 학습 내용을 제공하여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교과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심화반	• 기본 교과 개념을 설명하고 심화 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를 통해 수준 높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학 교과 수업 이외의 수학 활동(조노돔을 이용한 입체도형 만들기 등)을 시도한다.
평가	• 동 학년 담당 교사들의 공동 출제로 평가하여 내신 성적 산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 지필 평가에서는 주관식 문항(1~2문항)을 출제하되 수준별 문항을 제시하고 점수를 달리 부여하여 선택하여 풀 수 있도록 한다. • 수행 평가에서 태도 점수는 수준별 학급 내에서 부여하며, 서술형 평가는 전 학년 공통으로 같은 시간에 실시한다.

⑵ 영어 교실에서의 수준별 수업

㈎ 본교 2학년 8개 학급, 3학년 8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 영어과 교과 교실제는 2개 반을 3수준으로 편성하여 이동 수업을 운영하는 2+1 제도를 적용한다.

㈐ 수준별 이동 수업 반 편성을 위한 평가 기준은 전년도 학년말 성적을 기준으로 편성, 운영하되 매 학기마다 재편성한다.

㈑ 수준별 교수 학습 자료는 교수 학습 과정안, 학습 자료, 형성 평가지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 발전, 심

화로 구분한다.

㈐ 교수 학습 지도

① 영역별, 단원별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기본 학습 요소와 수준별 보충 심화 학습 내용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② 수준별 소집단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을 위해 교재를 재구성하였다.

㈑ 운영의 결과

지난 한 학기 동안 2+1 교실 구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 결과 얻어진 수준별 교과 교실제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다.

장점으로는,

① 학생들의 language proficiency에 보다 적합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② 능력 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나눔에 따라 특정 학생에게 편중될 수 있었던 교사의 관심이 보다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고 비슷한 수준의 적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① 비슷한 언어 능숙도의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동료 학습자로부터 동기가 유발되거나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다. 마찬가지로 상위 학습자가 하위 학습자의 학습을 도우면서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해 peer-teaching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② 보다 나은 언어 능숙도를 보이는 학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interlocutor effect를 누릴 수가 없고 특히 보충반의 경우 학습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③ 매시간 수준별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정시에 수업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⑶ 과학 교실에서의 수준별 수업

㈎ 개인별 또는 모둠별 학습, 탐구 실험에 적합한 실험대를 배치하고, 2인용 실험대를 이용하여 2인용, 4인용, 6인용으로 변화하여 교과 학습 활동에 맞는 모둠을 만든다.

㈏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교과 교실을 구축한다.

① 벽면 실험대 및 허리 높이의 낮은 실험 기구 보관장을 이용하여 항시 실험 기구를 접할 수 있고 간단한 실험을 스스로 해 보게 한다.

② 과학 관련 도서와 잡지를 과학실에 비치하여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해결한다.

③ 과학 시사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과학의 발전과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 수준별 교재를 제작하여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① 학년별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의 2수준 교재를 개발하여 담당 교사가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내용을 발췌하여 수업에 적용한다.

㈑ 결과

① 실험 기구를 접할 기회가 많아 흥미 있으며, 과학에 대한 안목이 증가하였다.

현재의 학교 교육은 학생의 수준 차이와 다양한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 교실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사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고,
수준별 수업에 따른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문항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② 기본반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심화반 학생들보다 다소 떨어졌다.
③ 매시간 이동해야 하고 합반을 하므로 수업 시작이 다소 산만하다.

Ⅴ. 추진 성과

본교에서 실시한 교과 교실제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2]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번호	조사 대상	장점	단점	비고
1	학생	1. 참여도와 자신감이 증가함. 2. 교실 환경이 좋음.	1. 한 수준만 수업 받다 보면 지칠 때도 있음. 2. 하반은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함. 3. 하반 같은 경우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자세히 지도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편임.	
2	학부모	1. 수준이 비슷하여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됨. 2. 첨단 기자재가 많음.	1. 수준별 개별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은 편임. 2. 하반 학생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음.	
3	교사	1. 학생 수가 비교적 줄어 관리하기 편함. 2. 활동 위주의 수업이 가능함. 3.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하여 수업 진행 원활함. 4. 예전보다는 수준별 수업으로 인해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아짐. 5.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신경 써 줄 여유가 생김.	1. 확실한 실력별 분반이 어려움. 2. 학기별 실력 향상에 따른 분기별 반 편성이 요구됨. 3. 교과 시간이 맞물려 돌아가 수업 보충에 애로점이 많음.	

그리고 교과 교실제를 이용한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향상을 아직은 시작이 얼마 안 되어 정확한 결과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본교에서 조사한 자료[3]를 참고하면 다음 표와 같이 하 단계 학생들의 성적이 비교적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번호	조사 대상	진단 평가	1학기 기말고사	차이	비고
1	상 단계	95%	94%	−1	
2	중 단계	52%	53%	+1	
3	하 단계	38%	42%	+4	

Ⅵ. 제언

교실 수업은 한국의 학교 교육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도 교육의 핵심 영역이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으며, 학교 역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교과를 통한 교실 수업은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실 수업의 중요성을 알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그러한 진행 과정에서 교사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핵심적인 연구 문제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영달은 언급하고 있다.[4)]

중학교 교육의 목표는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의무 교육을 통하여 민주 국가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교육은 학생의 수준 차이와 다양한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생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이 절실하다.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 교실제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수준별 수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며, 교과 교실 운영 및 수준별 교수 학습 자료의 제작, 교재의 재구성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교사의 업무 경감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항상 뒤따르는 평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준별 수업에 따른 평가도 수준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문항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과 교실을 활용한 교육이 비록 당장 눈앞에 드러날 만큼 획기적으로 학생들을 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교사의 노력과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이 뒷받침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이 교과 교실을 활용한 수준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

1) 김영천, 조재식 편(2004), “교과 교육과 수업에서의 질적 연구”, 문음사, pp. 28~29.

2) 2010. 6. 28.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이것은 본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에 실시한 진단평가와 1학기 기말고사의 수학 성적을 정리한 것이다.

4) 조영달(2001), “한국 중등학교 교실 수업의 이해”, 교육과학사, p. 15.

연재 외국의 교과서 제도(40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육 제도와 교과서 제도

최원석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스티지교육원장)

Ⅰ. 서론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교육은 1994년 만델라 정부의 개혁을 기준으로 이전의 교육 체제와 이후의 교육 체제로 나누어진다. 교육은 영국의 커리큘럼과 매우 흡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아공 현지 특수성(언어 및 민족 구성)에 맞추어 변형된 것으로 보이며 만델라 정부(1995) 이후 인종 차별로 인한 비특혜 인종, 즉 흑인들의 교육이 확대되고 교과과정 또한 통치 이념의 변화로 백인 정부 시절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적인 교과과정보다는 인재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개혁 중에 있다. 1995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공립학교는 주립학교로 전환되고 1996년 신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장전에 따라 인종, 종교, 언어 등에 따른 교육 차별을 금지하고 우선적 재정 지원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재까지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 재정으로 인하여 완전한 개혁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의 교육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은 인종 차별의 범위가 교육에까지 걸쳐 있어 혜택을 받던 주체들과 이를 새로이 받으려 하는 주체의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아공의 교육이 공립과 사립의 양극화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만델라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제도는 영어의 독립성과 표준성을 이용하여 창의성과 개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국제 유학생(아프리카 연합) 수가 증가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남아공의 교육은 초등 교육(GET: General Education and Training), 중고등 교육(FET: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대학교육(HET: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로 나누어져 있다. 대학은 4년제 정규 공립 대학, 2년제 전문 대학, 방송 통신 대학 및 각종 사립 대학이 있다.

Ⅱ. 교육 제도

1. 개요

남아공의 교육과정은 준비 학년 또는 예비 학년이라고 하여 한국의 유치원 과정과 흡사한 R 학년, GET 초등 과정(Grade 1~9), 그리고 FET 중 고등 과정(Grade 10~12)으로 총 13년 과정이다. 현재는 Grade 9까지가 의무 교육과정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생활고로 인하여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능 고사(Matric Exam)를 치룬 학생이 총 졸업생 중에서 50%였고 많은 흑인 학생이 초등 과정 뒤 일자리를 찾아 떠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GET와 FET는 같은 맥락이지만 사립 기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Primary(Grade 1~7)와 High school(Grade 8~12)로 나뉘어 있다. 만 7세가 되면 Primary School에 입학할 수 있으며 더욱 어린 나이에 입학을 원한다면 지방 교육감(Provincial Education Minister)의 승인하에 입학이 가능하다. 백인 비율이 높은 학교 또는 사립 학교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시민들은 조기 취학을 하기도 한다.

공립 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로 공립 학교에는 흑인이, 사립 학교에는 백인이 주를 이루지만 많은 신흥 흑인 중산층들이 흑백의 인종적인 편견보다는 교육의 질에 많은 관심을 보여 사립 학교의 흑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 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남아공에는 약 6000개의 고등학교와 2200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총 학생 수는 1250만 명, 정규 대학생은 21개 공립 정규 대학에 약 122만 명이 재학 중이다. 흑인 학생들은 주로 법률, 상경, 스포츠 등을 선호하며 백인 학생은 메디컬, 과학, 엔지니어링 등을 선호한다.

2. 수업 운영

공립 학교 또는 교육부 인증 사립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4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1학기	1월 13일	3월 26일
2학기	4월 12일	6월 11일
3학기	7월 13일	9월 23일
4학기	10월 4일	12월 3일

영국계 사립 학교의 경우 3학기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1학기	1월	3월
2학기	5월	7월
4학기	9월	11월

일반적으로 각 교실의 시설은 교사의 책임하에 운영된다. 학생들은 주로 교실 이동 수업을 하며 일과 중 쉬는 시간은 2회 정도다. 오전 8시에 수업을 시작하여 오후 2시경에 일과를 마친다. 수업 이동간은 휴식 시간이 아니며 수업 시간은 각 학교마다 상당히 다르다.

(1) 방과 후 특별 활동과 스포츠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 활동 및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스포츠는 축구, 크리켓, 럭비, 수영, 육상 등이 있으며 특별 활동으로는 각종 Social Activity, 예술, 음악, 취미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교과 과목

모국어 제1언어(남아공의 12 공식 언어 영어, 아프리칸스 어, 줄루 어, 수투 어 등)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Life Orientation(생활 또는 교양 과목, 필수 과목)을 제외한 6과목을 이수해야 12학년 수능 고사 자격을 받는다. 이후 학생과 학교장의 재량으로 과목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외국어는 선택이며 모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는 외국어(제2언어)로 구분한다. 대학 입학 자격(Matric Exemption)을 받기 위해서는 모국어 이외에도 제2언어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필수 과목 4가지(영어, 수학, 제2언어, Life Orientation)와 선택 과목 3가지를 이수

교과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OBE(Outcome-Based Education)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주입식 교육과는 다르게
교사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학생 스스로가 문제 해결과 탐구를 통하여
스스로 공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교사의 역할을 평가와 방향 제시로 좁히고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이다.

하여야 한다.

과목은 수학, 자연, 과학(물리와 화학으로 나누어짐), 사회, 역사, 지리, 경제, 회계, 미술, 음악, 연극, 체육, 컴퓨터, 기술, 디자인 등이 있다.

3. 교육과정 현황

(1) NQF(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남아공의 교육과정은 SAQA(South African Qualification Authority)라는 인증 기관을 통해 표준화되어 있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교육을 보충하고자 일반 독립적인 사립 기관에게도 기회를 주고 국제 표준에 맞추어 국제 학생 및 해외 졸업증 및 수료증을 남아공 표준과 대조하여 인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SAQA에서는 사립 교육 기관들의 과정들을 교육부에서 지정한 각 학년의 커리큘럼과 교과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교육하도록 하며 허가제로 각 사립 교육 기관에게 교육 허가를 내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Grade 12, 즉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부와 SAQA가 함께 운영하는 UMLASI Council이라는 수능 시험 검정 및 관리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규모를 떠나 사립이어도 정규 학교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NQF에 따라 Grade R(0)부터 9까지의 초등과정(GET), Grade 10부터 12까지의 중고등 과정(FET), 대학 과정(HET)으로 구분하여 그 해당 NQF Level을 규정하고 있다.

NQF는 각 학년의 커리큘럼과 교사들의 가이드라인을 정의함으로써 NCS(National Curriculum Statement 국가 교육과정)와 더불어 남아공 교육의 바탕으로 이를 통한 교과서 및 교사 가이드라인의 시스템을 확립된다.

BAND	SCHOOL GRADES	NQF LEVEL	QUALIFICATIONS
HIGHER		8	Doctor's degree
		7	Master's degree
			Honours degree
			Postgraduate diploma
		6	General first degree
			Professional first degree postgraduate
			Bachelor's degree
		5	First diploma
			Higher certificate
			Certificate
FURTHER	12	4	Diplomas
	11	3	Certificates
	10	2	
GENERAL	9	1	Grade 9 / Adult Basic Education and Training level 4
	8		
	7		
	6		
	5		
	4		
	3		
	2		
	1		
	R		

Ⅲ. 교과서 제도

교과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OBE(Outcome-Based Education)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주입식 교육과는 다르게 교사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학생 스스로가 문제 해결과 탐구를 통하여 스스로 공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교사의 역할을 평가와 방향 제시로 좁히고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필요성보다는 교사들의 가이드가 더욱 실질적으로 수업을 지원하고 있어 교과서의 사용이 비교적 적다. 하지만, 양극화되어 있는 남아공의 교육 현실상 흑인들의 성취도가 매우 낮고 그 결과 또한 백인 학생들의 결과에 비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남아공 교육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NCS가 지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교과서 편찬 주체와 이를 사용하는 학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교과서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편찬하지 않으며 교과서를 편찬하는 주체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로이 편찬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영국식 교과 과정을 따르던 남아공에서는 옥스포드(Oxford) 또는 캠브리지(Cambridge) 교재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NCS의 교과 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각 학교와 지역에 따라 교과서가 상이하고 각 교과별 교과서의 종류도 다양하다.

교사들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조사를 통하여 준비한 자료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며 NCS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특정 학교, 즉 비혜택 지역, 흑인 지역, 소외 지역 등은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많은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중간 유통 업체를 통하여 교과서를 구입해야 한다. 남아공의 교육 행정 문제로 어떤 경우 학생들이 학기를 모두 마칠 무렵 교과서를 수령하기도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과서의 비중이 비교적 적어 이에 따르는 참고서 또는 관련 서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 수업에 대한 학생 개별 참여도와 이해가 학생의 성취도와 관련이 크다. 남아공에서 사교육의 비중이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Ⅳ. 교사 학생 인터뷰

다음은 Pretoria의 Crawford라는 학교로 유학 온 한국 학생이 그 학교 현지 교사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 남아공의 학교가 한국의 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주십시오.

남아공의 학교는 매년 100명 정도를 입학시키며, 한 반의 학생 수는 20명 정도로 다섯 개 반으로 나눈다. Grade 8~9일 때는 반 학생 모두가 같은 수업 강의실로 이동하지만, 개인이 수업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grade 10부터 grade 12까지는 아침에 간단한 출석 체크 뒤, 개개인의 수업 교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분위기 또한 많이 다르다. 한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에만 치중하며, 언제부턴가 고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을 배제하다시피 하는 반면, 남아공의 고등학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는 음악, 스포츠 등 여러 가지의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다.

⊙ 한국과 남아공의 수업 방식을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업 방식 또한 많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교사가 칠판에 적고 학생이 따라 적어가며 암기하거나 교사가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을 집어주는 식의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남아공은 토론 형식의 수업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서는 소설 하나

를 읽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며 역사 과목 역시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그 배경 사진을 가지고 학생과 교사 간에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시험 또한 남아공의 경우 객관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서술형이 주를 이루며 한두 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로 마무리하는 형식이다.

수학의 경우에도 객관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식을 보기 위함으로 설령 답이 틀렸다고 해도 식의 과정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 **남아공에서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까? 남아공에서는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남아공에도 교과서가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선생님들은 교사 개인의 출력물을 학생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출력물의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과 교사 개인이 준비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영어의 경우 타임즈의 기사를 가지고 토론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아공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마다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 부분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본다. 못하는 학생에게 진도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은 교사들이 항상 교무실이라는 학생에게는 다소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더 다가가기 힘든 이유라고 본다.

남아공의 학교는 그 과목 교실이 그 과목 교사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훨씬 열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 **남아공의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학생의 진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학기 초 또는 말에 Parent's evening이라는 특별한 날을 기획하여 모든 학부모를 초청한다. 그날 모든 교사와 학부모가 강당에 모이고 상담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패션쇼, 음악회 등)를 개최하여 교사와 학부모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

각 반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간의 이해가 깊어 학부모와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진로에 대한 상담의 경우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와 관련된 고등학교 과목 담당 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지며, 이는 한국의 대학과 달리 남아공의 경우 대학에 진학할 때 대학의 희망 진학 학과와 관련된 고등학교 과목의 점수를 많이 보기 때문이다.

⊙ **선생님은 국가 교육 과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합니까?**

그렇다. 지역 교사 간의 모임도 활성화되어 있어 각 지역의 수학 교사들끼리 수학 교사들의 모임이라는 날을 만들어 친목도 다지고 토론도 하며 진도에 대한 상의도 한다.

⊙ **남아공의 교육 방법에 대해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이 학생들에게 주는 정보의 양은 훨씬 많다고 본다. 문제는 그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는 시험을 마치면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식을 얻기 이전에 학생들의 인성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본다.

Ⅴ. 결론

남아공에는 교육에도 인종 차별이 존재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남아공은 변화하고 있고 특히 교육의 중요성은 한국에 못지않게 인식되고 있다. 최고 명문 사립으로부터 헐벗고 사회 공적 인프라가 전무한 매우 낙후된 지역의 학교까지 매우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누리는 혜택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남아공이 모든 인종을 아울러 하나의 눈과 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연

나와 교과서



유진 〔영화 배우 / 탤런트〕

안녕하세요. 연기자 유진입니다. '교과서'에 관한 글을 부탁받고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었는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교과서'에 관해 생각해 보았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초등학교 시절 제 가방 속에 나란히 정리되어 있던 색색의 교과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리, 정돈을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제 방에서 옷들이며 여러 가지 물건을 정리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 성격은 어린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새 교과서를 받으면 언제나 집에서 동생과 함께 예쁜 색깔의 포장지로 교과서의 겉면을 포장하며 즐거워하고 예쁘게 싸여진 교과서를 아끼며 학교에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솜씨가 있었는지 예쁘게 포장을 잘해서 동생 교과서를 싸 주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의 부탁으로 그들의 교과서도 싸 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포장한 예쁜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펼쳐야 하는 때에도 새 교과서가 망가질까 봐 조심조심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괌으로 가족들과 이민을 간 후에도 제 가방 속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교과서는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즐겨한 편은 아니었지만 교과서는 언제나 제게 그리운 학교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이민을 간 괌에서 받은 교과서는 한국의 교과서에 비해 더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았지만 제게는 그저 낯선 언어의 교과서였고 그 후 언어적으로 적응을 한 후에도 정서적으로 한국 교과서에 더 많은 애착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도 한국의 중학교, 또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를 상상하며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저는 제가 받아보지 못한 한국의 교과서들을 생각했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 관한 기억은 이민 후 경험한 태풍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을 간 그해에 괌에 큰 태풍이 두 번 오면서 한 달 가까이를 정전 상태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동생과 집에만 머물며 시간을 보내던 그때도 저와 제 동생에게는 교과서가 가장 큰 놀이의 소재였습니다. 이민을 가면서도 어머니께서는 저와 여동생의 교과서를 챙기셔서 이민 후 괌의 방 한쪽 책장에 정리해

요즈음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어떤 기억, 어떤 추억으로 남게 될까요?
여전히 저와 같은가요?

주셨습니다. 저와 한 살 차이인 여동생과 교과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퀴즈를 하며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교과서를 읽고 또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교과서는 읽을거리가 많았던 사회 교과서였습니다. 사회는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는 교과서의 많은 내용이 새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가지고 동생과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머니께 여쭈어 보며 어머니를 귀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게 특별했던 교과서는 음악 교과서입니다. 피아노 치기를 좋아했던 저는 음악 교과서에 실린 모든 곡을 외워서 연주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음악 시간에는 피아노 반주를 도맡아 했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괌에서는 합창단 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즈음의 학생들은 교과서 이외에도 더 재미있고 더 쉬운 책들을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던 그때만 해도 교과서는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정보의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요즈음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어떤 기억, 어떤 추억으로 남게 될까요? 여전히 저와 같은가요?

이렇게 글을 쓰며 교과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니 지금은 괌의 집 창고 어딘가에 있을 옛날 교과서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며 그리워지네요. 바쁜 촬영이 끝나고 괌에 가게 되면 다시 찾아 열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음악 교과서의 성악곡 둘러보기



김대원 (경인고등학교 교감)

지난 글에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음악 작품 중에서 주로 기악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성악곡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성악곡 또는 가창곡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동요와 민요가 주류를 이룬다. 동요는 다시 전래 동요와 창작 동요, 외국 동요로 구분할 수 있고, 민요 또한 우리나라 민요와 외국 민요로 구분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민요와 가곡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합창곡과 감상용 오페라, 뮤지컬 등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성악곡을 여기서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요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곡, 그리고 감상용 성악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극음악(판소리와 오페라 등)을 둘러보고자 한다.

1. 영원한 노래의 고향, 동요 – 1920년대, 1930년대의 창작 동요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의 음악적 정서와 음악적 모국어 형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음악은 민요와 동요(童謠)이다. 외국의 경우 동요는 민요의 범주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요는 국악(國樂)의 범주에 속하고 동요는 양악(洋樂)[1]의 범주에 속한다. 물론 동요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래 동요도 있고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만들어진 어린이 노래인 창작 동요도 있다.

우리나라 창작 동요의 역사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다. 1920년대는 일제 강점기로서 당시 학교에서는 일본 창가만 가르쳤고, 학교 밖에서도 일본 노래가 범람하자 조선 어린이의 심성에 맞는 새로운 노래를 창작 보급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교양을 심어주고 정서를 함양시키며, 노래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족혼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동요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초기의 동요 운동은 방정환을 중심으로 하는 색동회가 주도하였는데, 색동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윤극영은 192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로 삼고 있는 '반달'을 발표하게 된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로 되어 있는 이 노래는 잡지와 유인물을 통해 전국에 보급되었고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듯이 순식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애창되었다. 이 '반달'은 5차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으나 현재는 실려 있지 않다. 그 후에도 윤극영은 '설날(까치 까치 설날은……)', '고드름(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등의 곡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박태준은 '기러기(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오빠 생각(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맴맴(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 가시고……)' 등을 발표하였으며, 홍난파는 '달마중(아가야 나오너라 달마중 가자……)', '고향의 봄(나의 살던 고향은……)', '퐁당퐁당(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등 100여 곡의 동요를 작곡하였다. 이 시기의 노래 가운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은 홍난파의 '고향의 봄'이 유일한데 이 곡은 한국을 대표하는 동요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와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도 널리 애창되고 있다.

1930년대에 발표된 동요로는 현제명의 '가을(가을이라 가을 바람……)', 홍난파의 '개구리(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무지개(알쏭달쏭 무지개……)', '햇빛은 쨍쨍', 김성태의 '방울새', 권태호의 '봄나들이(나리 나리 개나리……)', '눈꽃새(하얀 눈 하얀 눈 어째서 하얀가……)', 김대현의 '자전거(따르릉 따르릉 비켜 나세요……)', 김성도의 '어린 음악대(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아기별(서산 넘어 해님이 숨바꼭질 할 때면……)', 박태현의 '누가누가 잠자나(넓고 넓은 밤하늘엔……)' 등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최근까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던 곡들이다.



윤극영 동요집
'반달' 표지

이와 같이 주옥같은 동요들이 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거나 학생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하차하게 되고 최근의 창작 동요로 바뀌게 되는데, 동요는 단순히 '어린이의 노래'만을 의미 한다기보다는 어린 시절 친구들 또는 가족과 함께 불렀던 노래로서 평생을 두고 정서의 샘으로서 노래의 고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향수(鄕愁)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동요 중에서 몇 곡 정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범국민적 애창곡, 가곡 – 1920년대, 1930년대 가곡

우리나라에서 가곡이라고 부르는 음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국악에서의 그것과 양악에서의 그것인데 모두 '가곡(歌曲)'으로 부른다. 따라서 어떤 이는 국악 가곡을 '전통 가곡'으로 양악 가곡을 '예술 가곡'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또한 정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국악에서의 가곡은 시조시를 소규모의 국악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성악곡인데, 일명 '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이라고도 한다. 이보다 소규모의 악곡을 '시조(時調)'라고 하고 좀 더 대규모의 악곡을 '가사(歌詞)'라고 하며 고려시대 말부터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악의 가곡은 홍난파의 '봉숭아'나 김동진의 '가고파'와 같이 서양 음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예술성 높은 성악곡을 의미하여 슈베르트의 가곡(lied)과 같이 서양 예술 가곡과 구별된다.

우리나라 가곡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동요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로서 최초의 애창 가곡은 홍난파의 '봉선화'로 알려져 있다. 1926년 김형준이 홍난파가 작곡한 '애수'라는 기악곡에 지금은 일제의 총칼에 짓밟히고 있지만 화창한 봄바람에 한국의 민족혼이 다시 회생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붙여 '봉선화'라는 이름의 가곡이 되었고, 현재에는 '봉숭아'로 이름을 바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 홍난파의 가곡은 그 외에도 '봄처녀', '옛 동산에 올라', '사랑', '성불사의 밤', '장안사', '금강에 살으리랏다' 등 여러 악곡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 그의 친일행적으로 인하여 교과서 수록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아직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가곡의 대표 작곡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현제명의 '고향 생각(해는 져서 어두운데……)', '오라(앞산과 시내는 예같이 푸르고……)', '나물 캐는 처녀(푸른 잔디 풀 위로……)', 박태준의 '동무 생각(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등이 1920년대의 가곡들로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가곡은 서서히 근대적 가곡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예술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개인의 고통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널리 애창되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홍난파, 현제명, 채동선, 이흥렬, 김성태, 조두남, 김동진 등이 있다. 홍난파의 '사공의 노래(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현제명의 '그 집 앞(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희망의 나라로(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박태준의 '아! 가을인가', 김동진의 '봄이 오면', '내 마음(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어오……)', 이흥렬의 '바위고개(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고향 그리워(깊어가는 가을밤에 고향 그리워……)', '어머니의 마음(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조두남의 '선구자', 나운영의 '가려나' 등 주옥 같은 가곡 들이 이 시기의 가곡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발표된 가곡은 한국 가곡의 정형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가곡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곡이며, 가곡 연주회의 대표적 레퍼토리도 이 시기의 작품이다. 또, 이후에 만들어진 곡도 대부분 이 시기의 음악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은 서정성과 낭만성인데, 이로 인하여 한국 가곡하면 당연히 감상적인 분위기의 곡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정서를 우리 고유의 정서로 느끼게 되는 역기능도 있다. 아무튼 한국 가곡이 단순한 음악적 형식을 넘어 우리 민족의 노래로서 시대적 고통과 애환을 같이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 음악으로 엮어가는 한 편의 드라마, 판소리와 오페라

교과서에 수록된 성악곡은 대부분 노래 부르는 것을 목적으로 실리게 된 것(가창곡)들인데, 성악곡 중에서 주로 감상을 목적으로 수록된 곡의 대표적인 악곡으로 우리나라 판소리와 서양 음악의 오페라를 들 수 있다.

우선,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唱者)이 고수(鼓手)가 치는 북 장단에 맞추어 음악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음악이다. 판소리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소리로 엮어 벌이는 판이라는 뜻이다. 판소리는

소리꾼의 소리(노래), 아니리(대사), 발림(동작)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혼자서 노래도 하고 중간 중간 이야기의 내용을 재담을 섞어가면서 말로 설명하기도 하면서 내용에 맞는 동작을 부채와 함께 곁들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판소리는 소리꾼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수, 즉 북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추임새를 넣어 소리의 틈을 메워준다. 소리꾼의 신명을 돋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명창이라도 고수가 뒷받침을 잘 못하면 제 기량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일고수(一鼓手) 이명창(二名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판소리는 18세기 전후(숙종~정조)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12마당 —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박타령), 토끼타령(수궁가), 화용도(적벽가), 가루지기타령(변강쇠타령), 배비장타령, 옹고집타령, 강릉매화타령, 장끼타령, 가짜신선타령, 무숙이타령 — 이 불렸으나, 19세기 신재효에 의해서 여섯 마당으로 정리되었으며,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다섯 마당만 불리고 있다.

판소리는 창법과 지방의 특색에 따라 여러 '제(制)'로 나누는데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이 있다. 동편제는 씩씩하고 웅장하며 섬진강 동쪽 구례, 운봉 등의 지역이 주 무대이고, 서편제는 광주, 보성, 나주 등의 지역을 배경으로 정교하고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며, 중고제는 경기, 충청 지방이며 책을 읽듯이 덤덤하게 노래한다. 판소리의 장단 구성은 가장 느린 진양조로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엇중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오페라(Opera)라는 말은 원래 '작품'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오푸스(opus)'의 복수형으로 처음부터 가극(歌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16세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음악극에 '오페라 세니카(무대 작품)'라는 제목이 계기가 되어 음악극을 '오페라'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159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오페라는 초기에는 신화나 전설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나중에는 현실적인 내용을 가볍게 다룬 희가극(喜歌劇)인 오페라 부파(opera buffa)가 유행하게 되고, 이에 대비한 비극적 내용의 정가극(正歌劇)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로 구분된다. 이탈리아 오페라 형식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영향을 주어 19세기까지 서양 음악에서 중요한 음악 형식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바그너는 새로운 형태의 거대한 오페라 악극(樂劇)을 만들었는데, 예컨대 '리벨룽겐의 반지'의 경우에는 무려 4일 동안 연속 상연해야 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고전파와 낭만파의 작곡가들은 오페라 작품을 남겼는데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 피리', 베토벤의 '피델리오', 베버의 '마탄의 사수',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바그너의 '탄호이저', '로엔그린', '트리스탄과 이졸데', 베르디의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비제의 '카르멘', 푸치니의 '라 보엠', '나비부인' 등은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요 작품 들이다.

오페라는 연극적인 요소와 음악적인 요소 외에도 미술·문학·무용 등이 결합된 종합 예술이다. 또, 합창, 이중창, 주인공이 부르는 아리아, 기악곡으로 된 서곡과 간주곡 등 다양한 음악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 훨씬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이와 같이 판소리와 오페라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극음악(劇音樂)이라는 유사성을 가지지만 이를 음악적으로 풀어가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음악이여서 흥미롭다.

오페라는 종합 예술이라는 이름처럼 세트와 의상, 조명이 어우러지는 화려하고 스케일 있는 무대에서 아름다운 노래와 극적인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음악이다. 이에 비하여 판소리는 소박한 멍석 위에서 소리꾼 혼자서 소리와 아니리와 발림을 섞어가며 고수와 청중의 추임새에 맞추어 함께 한바탕 이야기를 풀어가는 대중 속의 음악이다.

형식과 연주 방법은 다르지만 이 둘 모두 음악으로 엮어가는 한편의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위대한 음악 유산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

1) 우리나라 전통 음악어법을 사용한 음악을 국악이라고 하고, 서양 음악어법을 사용한 음악을 양악이라고 한다. 양악은 서양에서 온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서양음악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외국어'와 '외래어'가 다르듯이 양악은 서양에서 유래하였으나 우리 문화에 편입되어 우리 음악으로 통합 정착된 음악을 가리키며 찬송가, 애국가, 창가, 동요, 가곡, 대중가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 문헌

- 민경찬(2006), '청소년을 위한 한국 음악사(양악편)', 두리미디어.
- 이성재(1994), '재미있는 국악 길라잡이', 서울미디어.
- 김경수(2000), '우리가 듣는 클래식은 다르다', 한국문학사.

제 언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 라는 관점에 대한 고찰

김선영 (서울길동초등학교 교사)

I. 들어가며

과거 교사의 교육과정적 역할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개발이라 함은 곧 국가 교육과정만의 개발을 의미하였고, 교사는 이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의 문서상에 나타난 지침을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교사가 곧 능력 있는 교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강조하면서 국가 교육과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여 나가는 인식과 구조의 전환을 의미함과 동시에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교육부, 1997).

그리하여 우리나라 제6차 교육과정부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시 도 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에 적절하게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였고, 각 학교에서는 이들 국가 기준과 시 도 교육청의 지침에 기반을 두어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더욱 강화하여 20 퍼센트 범위 내에서 교과(군)별 시수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적인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요구, 능력 등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교사들이 국가 교육과정과 시 도 교육청의 편성 운영 지침에 대한 각기 나름의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즉, 교육과정 결정 권한이 점차 학교에 이양되면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증대된 것이다.

교육과정이 교사가 아닌 교육 외부의 관련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경우,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교실에서 실행하는 '교육과정 실행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제 교사들은 수동적인 '교육과정 실행가'의 역할이 아닌 능동적인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역할 이동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즉,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스스로 계획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자유자재로 교실 실제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사 전문성에 대한 관련 최근의 연구들도 더 이상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데 머무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며 개선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교사를 '교육과정 개발자'로 인식하게 된 근본적인 까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Ⅱ.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

'교육과정 개발자'로 교사를 인식하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 계획된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행된 교육과정간의 괴리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학교 및 교실 현장은 교육과정 전문가나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이하고 다양하며, 교육과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본래 의도한 바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교육과정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교실에서 실행되고,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이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교사의 실행 과정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전문가나 정책자들, 특히 대학이나 정부 기관의 개혁자들은 교육과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데에만 주력을 다하고, 교사들의 요구나 학교의 조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Ornstein & Hunkins, 2004). 교육과정을 바꾸기만 하면 학교 현장이 바뀔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이 원래 의도된 바와는 다르게 운영됨을 나타낼 뿐이었다.

이는 교육과정 개발이나 결정 과정에 교사가 배제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사들이 교육과정 지침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하는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Top-Down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계획되고 개발된다면, 교육과정은 실제를 반영할 수 없고, 결국 계획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 사이의 괴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개발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Fullan & Pomfret, 1977), '교육과정 계획과 실천 간의 괴리는 '교사의 연구나 참여 없이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채택할 때 생긴다' (Saylor & Alexander, 1974)고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라는 관점이었다.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는 학교와 교실 수준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들은 진정으로 교육과정 개발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주체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교사들은 그들의 공통의 에너지를 교육과정과 교수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이다(Ornstein & Hunkins, 2004). 그렇게 된다면 교사들은 개발과 실행 사이의 매개자로서 이 둘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제6차 교육과정 입안자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방해 요인으로,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의 교육과정적 문제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학교는 그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정책으로 지목하였다.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단 하나라는 인식, 게다가 교육과정 대로 쓰인 교과서만이 유일한 교재라는 인식을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학교는 지역 사회의 특수성, 학교의 여건,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내용을 거의 동일한 진도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현실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교육 활동의 본질에도 맞지 않았다.

그리하여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정책이 가져온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과정에 있어서의 결정 권한을 시 도 교육청과 학교, 교사에 대폭 이양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세 수준의 교육과정(국가 → 시 도 → 학교)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이 모델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채용되고 있다. 이처럼 교사를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개념화하는 것은 교사를 교육과정의 실행자로 생각하여온 우리의 오랜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에

있어 엄청난 변화를 내포한다. 즉, 무엇보다 중앙 집중화와 그로 인한 교육과정의 획일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또, 교육과정을 학교와 교실이라는 '장'에서 해석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다시금 만든다는 것은,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함을 의미한다.

Ⅲ. 요즈음의 우리 현실

우리나라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최근의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 내용의 적정화, 다양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분권화된 교육과정 체제를 제도화하여 왔으며, 이제는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맥락은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의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없고, 교육과정 개발의 위계란 없으며, 그 누구도 교육과정의 실행의 수단이 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즉, 과거에는 교육과정이 교사가 아닌 교육 관련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실제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육과정을 교실이라는 '장'에서 해석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교육의 실제에서 교사를 소극적으로 개념화하였던 기존의 이념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적극적 주체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위 또는 교사 단위의 교육과정 개발의 활동은 대체로 교육과정 시수 정도만을 조정하는 일이며, 당해 학년 또는 학기의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 행위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하여,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창의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된 이 글을 교사를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새롭게 개념화함으로써 대안을 탐색하고자 했다. 그동안의 교사 역할이 교육과정 실행자 즉, 전달자로 개념화되어 온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의 역할 탐색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인식적 해결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현재의 분권화된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사의 의식과 역할 수행은 과거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1]로 보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과 관심의 부족, 과도한 수업 및 업무 부담, 교육과정 개발의 위계 및 관행적 실태,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과 냉소적 태도, 자료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제대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비록 이것들로 한정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문제점에 입각하여 몇 가지 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개발자로서의 교사 역할 정착하기

첫째,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교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 도 교육청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와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의 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한지 그 한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교사들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교사는 조직의 위계나 보수적 문화, 선배 교사와의

관계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 여러 갈등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교사들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여야만 한다. 이때,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를 유도하는 교장의 교육과정적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의 실질적 주체인 교사집단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행정 관료,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교육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요구된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사가 주도적이긴 하지만 관련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식과 분위기가 형성될 때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 역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현재의 교사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볼 때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의 구성을 잘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회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는 복잡한 주변 상황과 함께 자신의 신념 체계와 지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나간다. 이와 같은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근에 고안된 개념이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이다. 실천적 지식은 그들의 과거 경험이 오랜 시간 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교사들이 교육 환경을 해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그들의 실천적 지식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것을 교사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대체로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교사 집단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학년 집단, 중등학교의 경우 같은 교과 집단과 의논 협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할 때 처음부터 큰 규모의 지원과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교사들이 원하는 작은 집단에서부터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단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연

1) 오지연(2001)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주장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사 자신은 교육과정 개발 참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김평국(2005)의 연구에서는 비록 일부 교사들이 교과 내용 재구성을 하지만, '전개 순서 변경', '내용 추가나 생략' 등의 소극적인 재구성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제윤(2007)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교사들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지만 관행적 교육과정의 존재로 인하여, 학교는 이전부터 운영해 오던 개발 방식만을 지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 총론, 재량활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평국(2005), '중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내용 재구성 실태와 그 활성화 방안 – 교육과정연구, 23(4), pp. 91~130.
- 박제윤(2007),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권 행사에 관한 연구 – 실천적 관점에서 본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지연(2001),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분권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Fullan, M. G. & Pomfret, A.(1977), 'Research on curriculum and instruction implementation –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7(1)', pp. 335~397.
- Ornstein, A & F. Hunkins(2004), 'Curriculum – Foundations, Principles, and Issues, 4rd ed., Boston', Allyn & Bacon.
- Saylor Galen J. and Alexander William M.(1974), 'Planning curriculum for schools –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김영진

-(주)미래엔컬처그룹 대표 이사-



1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회사 이름을 '미래엔컬처그룹'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명을 바꾼 이유와 '미래엔컬처그룹'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회사 이름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교과서 사업에 매진해 온 터라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 하면 '대한교과서'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 상황에서 회사 이름을 바꾸어 세상에 알리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지요. 하지만 2000년 초반부터 신사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대한교과서'라는 사명이 사업 영역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지금의 복잡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그 산물이 바로 '미래엔컬처그룹'입니다.

미래엔컬처그룹은 '미래의 꿈을 만드는 기업', 즉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지식, 정보, 문화를 생산하는 컬처그룹다운 차별성과 미래 지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를 제공하는 꿈의 세계를 상징화한 'N'은 제임스 매튜 배리의 '피터 팬'에 나오는 순수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의 나라 네버랜드를 나타냅니다.

2 미래엔은 교과서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엔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군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군은 크게 교과서, 교재, 출판, 특강, 상업 인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의 씨앗인 '국정 교과서' 사업입니다. 창업 이래 현재까지 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한 품질의 교과서 발행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수준 높은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국정도서 발행권 다원화로 인해 여러 교과목이 타사로 이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정도서 발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둘째,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펼치는 '검정 인정 교과서' 사업입니다.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연착륙하는 창의적 교과서, 그리고 영역별로 다양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육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된 검정 심사에서 합격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내게 맞는 학습을 추구하는 '초 중 고등학교 참고서' 사업입니다.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는 초

등 학습 교재, 기초부터 실력까지 탄탄하게 다져 주는 중등 학습 교재, 내신에서 수능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고등 학습 교재까지 폭넓은 참고 자료와 정선된 문제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학습 능력과 성취도를 고려한 참고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과 후 학교 특강의 대표 주자인 '파사쥬 방과 후 학교 특강' 사업입니다. 파사쥬 학습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수능, 논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학생과 선생님들께 최고의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교육 시스템인데, 수준 높은 강의와 체계적 학습 설계, 차별화된 서비스로 학생과 학교에 맞는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아이들의 꿈상자인 '아이세움' 사업입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꿈과 희망을 올곧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담긴 아동 및 청소년 도서 대표 브랜드이지요. 아이세움은 과학, 문학, 역사, 지리, 예술, 그림책, 학습 만화 등 필요한 지식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중국, 태국, 대만, 베트남, 일본, 멕시코 등에서도 번역 출간함으로써 세계의 어린이들이 함께 아이세움의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아이들의 즐거운 책세상을 성실히 만들어 가는 '아이즐' 사업입니다. 아이즐북스는 펀북(fun book)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책과 교구재를 개발하여 놀이처럼 즐거운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2007년부터는 영역을 확대하여 0~13세의 모든 어린이가 자신 있게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즐북스는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실용 정보, 사회성 발달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는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일곱째, 아동 및 청소년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배양하는 '휴이넘' 사업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독자들이 문학, 인문, 과학,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을 개발합니다. 특히, 새로운 개념의 그림책인 가치 만세 시리즈와 대표적 문학 작품을 엄선하여 독서와 논술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과서 한국 문학 시리즈, 리틀 배틀 시리즈, 사이언스 스쿨 시리즈 등을 발행,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청소년의 학창 시절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덟째, 꿈을 실현시켜 주는 지식의 화수분인 '북폴리오' 사업입니다. 북폴리오는 book과 portfolio의 합성어로 큰 책 또는 넓게 펼쳐진 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학, 인문, 경영, 실용서 등 다양한 분야의 성인을 위한 수준 높은 단행본을 선보여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책, 미래를 읽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홉째 'ENG-up'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에 출범한 이 사업은 영어 학습의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My Planner 시리즈와 간단 영어 여행 시리즈 등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쇄 사업을 소개합니다. 국내 최대의 인쇄 시설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각종 인쇄 수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지 인쇄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2008년에는 국내 최초로 무습수 인쇄에 성공하는 등 친환경 인쇄 시스템 구축에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무습수 인쇄란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판 현상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무습수 전용 수성 잉크를 사용하므로 잉크 롤러를 물로 세척할 수 있어 VOC(휘발성 유기화합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미래엔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검정 합격률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엔 검정 교과서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한 검정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것과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

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교과서가 쉽고 재미있어야겠죠. 학생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주옥같은 글,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탐구 활동, 기초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성취해 나가는 학습 활동들은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자극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과서에서 학습하는 내용과 일상생활이 분리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을 둘러싼 사회와 언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해진 디지털 다매체 시대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학생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 휴대 전화, 영화, 광고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이러한 활동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자료인 CD 개발하여 교과서의 지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교과서의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흥미를 돋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배려, 저작권 바로 알기, 환경 보호와 실태 등을 소재로 삼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답다'라는 말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재미있게 학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고 합격한 미래엔 검정교과서들은 이러한 변화된 교과서의 개념과 새로워진 교육과정의 핵심을 가장 잘 꿰뚫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기업이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의식과 사회 환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미래엔은 '한국교육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신뢰 기업 부문 2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 미래엔이 펼치고 있는 사회 환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 문화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보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3년에 '교과서 박물관'을 개관하여 10여 년간 수집한 교과서와 각종 교육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교과서 전문 생산 공장인 조치원 사업장과 연계하여 현장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은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므로 장학 사업에 기여할 목적을 재단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일의 교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교육 대학과 25개 대학 재학생들에게 1973년부터 '목정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사업이 곧 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는 모토 아래 2001년 12월에 '목정 문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넷째, 향토의 문화를 지키자는 뜻으로 '목정 문화상'을 제정하여 지역 사회와 문화 발전에 업적을 쌓은 분들을 찾아 1993년부터 해마다 문학, 미술, 음악의 세 부문에 걸쳐 시상을 하고, 부문별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향토 문화 발전의 주춧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학교 운동 본부의 공모 후원자로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학교상을 발굴하여 연구와 토론회, 세미나를 통한 아름다운 학교 운동의 의미와 철학을 정립하고 확산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 학생 돕기, 유해 환경 근절 캠페인, 학생 인권, 인성 교육, 리더십 교육, 아름다운 학교의 언론 홍보 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2006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하여 북한 평양 교육 도서인 인쇄 공장에 윤전기를 기증했습니다. 북한에서 윤전기가 교과서 공급을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남북 모두의 교과서를 생산하게 되는 뜻 깊은 나눔이었습니다. 이번 기증을 통하여 북한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이바지하였

을 뿐만 아니라 남북 화해에 기여하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1월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⑤ 회사의 성공 여부는 인재 경영, 사람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그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최고 학력과 실력을 가진 베스트 피플(best people)보다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며 늘 열정을 잃지 않고 남의 회사가 아닌 내 회사라는 협력 능력이 배어 나오는 라이트 피플(right people)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기업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정과 성실함을 가지고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만이 큰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하는 CEO 뒤에는 명품 비서가 있다"라는 책이 있던데, 저는 "성공하는 CEO 뒤에는 명품 직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책에 체온이 흐를 때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합니다. 손을 부비면 따뜻한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자기 고집과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협력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부심이 지나쳐 오만한 자아 도취자가 되면 그 책에 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쉼없이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⑥ 끝으로 회사 경영 철학이나 이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며 내가 옳으니 그르니 말다툼을 하다가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라고 하면 한 발짝 물러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만큼 '교과서' 하면 가장 완벽하고 빈틈없는 모범 답안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는 교과서에 한 치의 오류나 잘못된 정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처럼 완전 무결점의 제품을 지향하는 교과서 사업에 주력하다 보니 그동안 다소 경직되고 관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진리가 오늘은 오류가 되기도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 곳에 안주하면 그 물이 고여 결국에는 썩게 마련입니다.

미래엔은 더 큰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교육 출판 전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 가려는 회사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상상, 사랑, 도전'을 핵심 가치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기업을 성공의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나침반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하여 긍정적인 마인드, 열린 사고,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직원 간 신뢰와 신용을 쌓아 가고자 합니다.

▣ **대담** / 김종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자 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및 적용 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공통	용어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외국어(영어) • 재량 활동, 특별 활동	• 공통 교육과정 • 선택 교육과정 • 영어 • 창의적 체험 활동
	신설 사항		• 학년군, 교과군 개념 •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 등) • 교과 교실제 운영 활성화 유도 • 학습 부진아,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시 도 교육청 지원 사항 신설
학교 급별	초등 학교	• 초등 통합 교과 우리들은 1학년 분리 독립 • 정보 통신 활용 교육, 보건 교육 등을 재량 활동을 활용하여 지도	• 우리들은 1학년을 폐지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으로 반영 • 정보 통신 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하여 지도 • 초등 '돌봄 활동' 지원 사항 신설(교육청 지원 사항)
	중등 학교	• 선택 과목: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등	• 선택 과목: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
	고등 학교	• 고1 교과 필수 • 총 이수 단위: 210단위 •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이수 단위의 50%를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포함 3개의 외국어 교육	• 고교 모든 교과 선택 • 총 이수 단위: 204 단위 •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 • 대학 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 • 과학, 영어, 예술 등 영역별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자율 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 •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이수 단위의 60%를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의 외국어 교육
	공통	• 민주 시민 교육, 경제 교육 등 35개 요소	• 녹색 교육, 한자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추가

※ 2011학년부터 학교 급별 학년별 단계적 적용

	2011년	2012년	2013년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중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교과서			발행사	전화 번호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 국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특수학교	미래엔컬처그룹	(02)3475-3800
		○ 영어(CD, TAPE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생활의 길잡이 3~6학년 포함)	지학사	(02)330-5302
		○ 과학(실험 관찰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예 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학사	(02)701-5120
	중학교	○ 국어 2, 3학년(생활 국어 포함), 국사, 특별활동 지도 자료	두산동아	(02)3670-5109 (02)3475-3800
		○ 생활 외국어	천재교육	(02)3282-2851
		○ 도덕	지학사	(02)330-5302
	고등학교	○ 국어, 문법, 국사, 공업계, 수산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이산 수학, 확률과 통계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 윤리 계열, 농업계	지학사	(02)330-5302
		○ 외국어계(아랍 어 1, 아랍어 2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과학계(생활과 과학, 고급 수학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체육계(체육 개론, 스포츠 과학)	교학사	(02)701-5120
검정 교과서		위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인정 교과서 미포함)	한국검정교과서	(02)2657-3540~4

| 서울 지역 직매장

● **(주)미래엔컬처그룹 직매장** – 모든 국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컬처그룹 빌딩 1층(☎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두산동아(주) 직매장** – 모든 국정(검정 일부)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02-3670-5106, 9)
– 지하철 :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모든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 방향 30m 지점(인디안모드 2층)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 분야 _ 〈현장 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보내실 곳** | E-mail 접수(editor@ktrf.re.kr)
· **기타 문의** | 전화 (02) 2651-1953 연구지 담당자 앞

http://www.ktrf.re.kr



| 운 영 개 요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 유 자 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32,274	6,587	38,861
일반 자료	2,928	–	2,928
계	35,202	6,587	41,789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 열 람 시 간

구 분	시 간
평 일	09 : 00 ~ 17 : 00
토요일	휴관
공휴일	휴관